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일리아스』의 테르시테스

-2.212~242를 중심으로-

2012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김 준 서

# 『일리아스』의 테르시테스

-2.212~242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 이 종 숙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김 준 서

김준서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 년 7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일리아스>에서는 시인이 이야기 진행을 멈추고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소개(Character Introduction)”가 빈번하게 반복된다. 이러한 인물 소개의 주된 목적은 해당 인물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벌어지는 사건에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있다. 특히 연설에 앞서 등장하는 인물 소개는 이어지는 해당 인물의 연설에 청중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시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리아스> 2권에 등장하는 테르시테스에 대한 시인의 소개 역시 상기한 인물 소개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인물 소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인물 소개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외모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시인이 드러내는 직접적인 비난과 노골적인 혐오감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인이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면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표현들이 <일리아스>의 다른 장소들에서는 오직 등장인물들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바꿔 말하면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인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테르시테스에 대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은 인물 소개 이후 제시되는 테르시테스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테르시테스의 연설은 아카이아 군의 공식적인 모임인 “집회(ἀγορή)”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연설로, 이러한 공적인

연설은 해당 인물이 <일리아스>의 보편적인 가치인 “영웅적 탁월함”을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 받고자 하는 무대이다. 영웅적 탁월함은 행동과 말, 즉 “무용”과 “연설”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일리아스> 내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일리아스>의 공적인 연설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테르시테스 역시 사용하고 있는 “비난의 수사(Rhetoric of Blame)”는 영웅적 탁월함이 무용과 연설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난의 수사는 주로 전장에서 상대의 용기 없음, 혹은 무용의 결핍을 비난하는 장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은 그것이 공적인 연설에서 활용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비난의 수사는 일관되게 ‘전투에 대한 기피’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난의 수사는 단지 상대방의 무능력함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말하는 이 자신이 상대방이 결여하고 있는 능력, 즉 무용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의 수사가 공적인 연설에서 활용될 경우, 그것은 단순한 과시를 넘어서 말하는 이의 가치, 즉 그가 영웅적 탁월함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공식적 승인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공적인 연설은 해당 집단에 의해 지지 받고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테르시테스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관습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비난의 수사를 오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테르시테스에게는 비난의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시인이 그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무용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가 전쟁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비난의 표현들은, <일리아스>의 다른 장소에서는 예외 없이 전투에 나설 것을 독려할 때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공적인 연설에서 테르시테스가 사용하고 있는 뒤틀리고 전도된 비난의 수사는 단지 전장이나 회의에서의 무능력함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테르시테스는 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비난의 수사를 그 토대부터 왜곡하는 동시에 그러한 왜곡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쟁의 포기를 제안함으로써 <일리아스>의 보편적 가치인 영웅적 탁월함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시인은 테르시테스에게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비난과 노골적인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주요어: 일리아스, 인물 소개, 테르시테스, 공적인 연설, 영웅적 탁월함, 비난의 수사

학 번: 2010-20059

# 목 차

1. 들어가는 글.....	1
2. 인물 소개(Character Introduction).....	6
2.1. 칼카스에 대한 소개.....	12
2.2. 네스토르에 대한 소개.....	14
2.3.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	18
3. 영웅적 탁월함: 무용과 연설의 견비.....	35
3.1. 공적인 연설: 영웅적 탁월함의 공식적 승인.....	39
3.2. 무용: “비난”의 필수적 조건.....	44
3.3. 거부당한 연설: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	51
4. 나오는 글.....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8

# 1. 들어가는 글

<일리아스> 2권에 등장하는 테르시테스는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저마다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명백한 공통분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테르시테스를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여타 영웅들과는 이질적인, 바꿔 말하면 영웅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전적으로 결여한 인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일관된 부정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인이 테르시테스를 소개할 때 보여주는 이례적인 태도로부터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시인은 그를 소개하면서 직접적인 비난과 노골적인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인의 모습은 <일리아스> 내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테르시테스를 향한 시인의 태도가 어떤 면에서 이례적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테르시테스에 대한 시인의 묘사를 해석한 연구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Bowra는 시인이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는 부분을 “그(시인)가 경멸을 보이는 단 두 사람인 테르시테스와 돌론은 수준 이하의 존재들로서,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sup>1</sup> 이라 평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Rankin은 “테르시테스의 외모와 태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입부는, 우리가 그에 대해 보일 것이라 시인이 기대하는 반응이 바로 혐오와 멸시임을 보여준다”<sup>2</sup> 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소개에 근거하여

---

<sup>1</sup> “Only those whom he despises, Thersites and poor Dolon, are below standard, and they are so created intentionally.” (Bowra 1930, 213f.).

<sup>2</sup> “...the unfavourable preliminary report of Thersites’ appearance and demeanour show us that the attitude we are expected to adopt towards him is one of dislike and contempt.” (Rankin 1972, 38).

테르시테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는데, 이들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평가는 Beye가 내린 것이다. 그는 테르시테스를 “무례하고 천박하며, 왕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홀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신체적 외모를 상쇄할만한 다른 어떤 특성도 갖지 못한 존재”<sup>3</sup>라고 서술한다. 다른 연구자들의 평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평가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Mueller는 테르시테스를 “평민에 대해 귀족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추하고 겁 많은 떠버리”로 간주한다.<sup>4</sup> 이 밖에도 Redfield와 Silk는 그를 각각 “수치스러운(dishonourable)”,<sup>5</sup> 그리고 “주체를 모르고 설치는(upstart)”<sup>6</sup> 인물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테르시테스의 저열함은 “고귀한(δῖος)” 영웅들이 난무하는 <일리아스>의 세계에서 역설적으로 단연 두드러지는데, 이처럼 이질적인 인물이 대체 영웅들의 세계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 혹은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Reinhardt는 테르시테스가 <일리아스>의 이야기 흐름에서 중요한, 더 나아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 평가한다. 아킬레우스가 물러난 이후 땅에 떨어진 아카이아 군 전체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분수를 모르는 독설가 테르시테스의 등장은 바로 그런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즉, 고향으로 퇴각할 것을 주장하는 테르시테스를 오뒷세우스가 제압함으로써 아카이아 군이 다시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

<sup>3</sup> “...rude boorish Thersites...a menial, a nonentity among dynastic aristocrats, has no other dimension to his being than his physical appearance.” (Beye 1968, 86).

<sup>4</sup> “...the aristocrat’s image of a perfect plebeian, an ugly loudmouth and coward.” (Mueller 1984, 6).

<sup>5</sup> Redfield 1994, 161.

<sup>6</sup> Silk 1987, 83.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sup>7</sup> 이 밖에도 Thalmann은 테르시테스가 <일리아스>가 내세우는 지배적인 가치, 즉 지배계급인 아카이아의 장수들이 따르는 이념에 부합하지 않기에 처벌받고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희생양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sup>8</sup> Seibel 역시 Thalmann과 유사한 분석을 내리고 있는데, 테르시테스가 아카이아 군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오뒷세우스에게 처벌받는 이유는 그가 공동체의 보편적 질서 밖에 놓인 이질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9</sup> 반면 Meltzer는 이들과는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시인이 테르시테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의도를 해석하고 있다. 그는 테르시테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아킬레우스의 장엄하고 비극적인 모습의 의도적인 대비를 통해, 시인이 주인공 아킬레우스의 양면성과 그가 처한 모순적인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sup>10</sup> 비슷한 맥락에서 Postlethwaite는 테르시테스의 존재를 <일리아스> 전체의 주제와 연결시킨다. 2권에서 테르시테스가 행하는 연설은 여러모로 1권에 나타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를 연상시키는데,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 시인은 <일리아스> 전체의 주제인 “분노(μῆνις)”를 청중에게 재차, 그리고 더 폭넓게 환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1</sup> 이 밖에도 테르시테스가 등장하여 활약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인이 <일리아스>를 공연할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추출해내려는 시도 또한 드물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Kirk는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테르시테스가 아가멤논에게 날카롭고 호된 비난을 가하는 장면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테르시테스가 야기하는 분쟁은 미케네 시대가 막을 내리던 시기에 발생한 지배적인 가치의 균열과

---

<sup>7</sup> Reinhardt 1961, 112~115.

<sup>8</sup> Thalmann 1988, 6f.

<sup>9</sup> Seibel 1995, 396f.

<sup>10</sup> Meltzer 1990, 267ff.

<sup>11</sup> Postlethwaite 1988, 124.

그로부터 발생한 집단들 간의 갈등을 암시하며, 더 나아가 <일리아스>가 최종적인 형태를 갖출 무렵, 즉 기원전 8세기에 유행했던 정치적 무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다.<sup>12</sup>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이들을 느슨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로 묶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분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테르시테스라는 인물이 <일리아스>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또는 공인된 가치 혹은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위반하는 대상이 지배적인 이념이든 공동체를 규정하는 위계질서든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이건 간에, 테르시테스가 그것을 위반한다는 사실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비판적 묘사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글도 이러한 전제를 공유하며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테르시테스의 작품 내 역할 또는 기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는 시인이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런 시인의 소개 방식이 어떤 점에서 예외적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덧붙여서 테르시테스가 행하는 연설의 실패가 그의 태생적인 열등함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분석한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그가 열등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연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리아스>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리아스> 내에서 공식적인 연설이 갖는 의미와 그러한 연설의 관습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어서 이와 같은 공적인 연설의 관습이 다른 아닌

---

<sup>12</sup> “He (i.e. Thersites) is a sophisticated cold-blooded politician, and his demagogic cynicism is represented in a most advanced and artistic fashion. This aspect of Thersites is probably drawn from life, the political life of the eighth century B.C. In historical terms the Thersites of the *Iliad* may well represent first of all an old layer of almost forgotten conflict between different groups at the close of the Mycenaean period, and secondly those elements of political disturbance which began to show themselves at about the time the Homeric poems were put in their final form, or perhaps somewhat before it.” (Kirk 1977, 22).

<일리아스>의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인데, 이로부터 연설의 관습을 위반하는 테르시테스의 연설은 곧 <일리아스>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시인으로 하여금 테르시테스의 연설에 대해 그토록 예외적인 비난을 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위에서 제시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일리아스> 내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에 대한 시인의 소개가 갖는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 소개를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테르시테스에 대한 시인의 소개가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히겠다. 이어서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를 그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한 시인의 소개와 비교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테르시테스에 대한 시인의 소개가 갖는 예외적인 성격을 상세히 밝혀보도록 하겠다.

## 2. 인물 소개(Character Introduction)

<일리아스>에서는 작중 인물이 등장할 때 시인이 이야기 진행을 잠시 멈추고 그 인물을 소개하는 모습이 매우 빈번하게 반복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를 “인물 소개(character introduction)”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러한 “인물 소개”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2권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아카이아 함대 및 트로이아 군과 동맹군에 대한 목록이 “인물 소개”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집약되어 있는 방대한 인물 소개들은 표면적으로는 청중을 향한 일차적 정보전달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인이 이를 통해 의도하고 있는 더 중요한 효과는 이어지는 사건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인은 아카이아 군과 트로이아 군 사이에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에 앞서 수많은 등장 인물들에 대한 인물 소개를 삽입함으로써, 이어지는 사건-양군의 전쟁 개시-에 대한 청중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물 소개의 연속은 앞으로 벌어질 트로이아 전쟁의 거대한 규모와 숨막히는 격렬함을 암시해준다. 이어서 두 번째 종류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인물 소개”를 들 수 있는데, 일대일 결투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인물들은 모두 ‘죽기 위해’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 소개” 또한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 소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인물 소개”의 목적 역시 뒤이어 벌어지는 일대일 전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살해당하는 인물은 시인의 소개를 통해 그에 갈음하는 비중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해당 인물을 꺾은 상대방의 승리를 드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의 “인물 소개”는 뒤따르는 결투의 치열함, 즉 상대방이 뛰어난 인물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를 제압한 승자의 영광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인은 종종 살해당하는 인물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 고향에서 가족들과 보냈던 평화로운 삶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역시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죽음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의 대비를 통해 전투의 냉혹함과 비정함을 청중에게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앞으로 연설을 시작할 등장인물에 대해 시인이 소개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테르시테스에 대한 시인의 소개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일단 연설에 앞서 해당 인물을 시인이 소개하는 경우가 <일리아스> 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리아스>의 핵심 인물이자 불화의 두 주역인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연설을 앞두고 있을 때조차, 시인은 그들에 대한 묘사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첫 연설을 시작하는 아가멤논은 그저 “아트레우스의 아들(Ἀτρείδῃ)”일 뿐이며(1.24), 첫 집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일어서는 아킬레우스는 단지 “발이 빠른(πόδας ὠκύς)” 인물일 뿐이다(1.58). 이러한 수식어구들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서사시의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요소로서의 정형구(formula)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sup>13</sup> 시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어서 살펴보게 될 몇몇 예외적인 사례-연설을 앞둔 인물을 시인이 소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리아스> 전체에 걸쳐 관찰되는데, 앞서 언급한 두 사람 이외의 중요 등장 인물들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진다.<sup>14</sup> 이러한 점이야말로 바로 서사시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시인이 등장 인물에 대해 구구절절

<sup>13</sup> “아트레우스의 아들(Ἀτρείδῃ)”과 “발이 빠른(πόδας ὠκύς)”이라는 두 정형구는 각각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에게 고유한 정형구로서, 이들은 실제적인 의미 전달보다는 육각운(hexameter)이라는 <일리아스>의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sup>14</sup> 예를 들어 1권 442행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시작하는 오뒷세우스 역시 그저 “지력이 풍부하다(πολύμητις)”는 그에게 고유한 정형구와 함께 등장할 뿐이며, 심지어 3권 39행에서 파리스를 꾸짖으며 등장하는 헥토르는 어떤 수식어도 갖고 있지 않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청중은 이미 서사시를 둘러싼 전통이 그 인물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보들을 시인과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작가가 어떤 식으로든 독자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혹은 그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한 “인물 소개”가 필수적이라면, 서사시의 시인은 그러한 의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sup>15</sup> 따라서 등장 인물의 연설에 앞서 삽입되는 시인의 소개는 단지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연설 앞에 등장하는 “인물 소개”는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인물 소개와 마찬가지로 소개 받는 인물 자체가 아닌 그에 뒤이어 따라오는 내용, 즉 해당 인물의 연설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시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바꿔 말하면, 시인은 이어지는 연설에 대해 청중이 자신과 같은 평가를 내리게끔 그에 부합하는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인물 소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연설에 앞서 해당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제시된다면, 청중이 그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를 시인이 원하고 있음을, 더 나아가 시인 자신이 해당 인물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연설에 앞서 등장하는 소개 장면이 뒤따르는 연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째서 시인은 다른 인물들, 아니 더 중요한 인물들의 연설 앞에서 그러한 소개 장면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 왜 아킬레우스나 아가멤논, 또는 오딧세우스나 헥토르가 아닌가? 시인은 그들의 연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

<sup>15</sup> “Unlike the typical novel, whose characters are created by the author for the specific work (even historical figures are usually recreated) and will, with occasional exceptions, never be met outside that novel, the *Iliad* and the *Odyssey* are stocked largely with characters already familiar to the original audience. Among the advantages gained by using traditional figures is the narrator’s freedom from the obligation to explain who each person is. …the simple mention of their names touches off a longer chain of facts and attributes than a novelist can accomplish in many pages.” (Richardson 1990, 37).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인이 어떤 인물들에게 그들이 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물 소개”를 할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설에 앞서 시인이 해당 인물을 소개하는 모습은 작품 전체에 걸쳐 다섯 차례 등장하는데, 칼카스(1.68~72), 네스토르(1.247~252), 테르시테스(2.212~223), 우칼레론과 안테노르(3.149~153),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론(10.314~317)을 소개하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한다. 네스토르를 제외한 다섯 명은 <일리아스>에서 위에 언급한 부분에만 등장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인물들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점은, 그들이 서사시 전통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비중이 없이 다루어졌거나 아예 언급조차 된 적 없는 인물들이었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 그들의 연설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뒷세우스의 연설은 인물 소개 없이 제시되더라도, 서사시 전통에 의해 청중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의 신중함과 지혜로움에 힘입어 시인이 원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청중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경우 그의 연설만 주어저서는 시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청중의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스토르의 경우 <일리아스>에서 그가 가지는 비중을 생각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네스토르가 시인이 줄거리 진행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낸 인물이거나, 서사시 전통에 이미 존재하는 인물이라도 그 비중은 미미했으리라는 것이다.<sup>16</sup> 두 번째는 네스토르가 서사시 전통에서도 <일리아스>에서 그가 차지하는 정도에 버금 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

<sup>16</sup> Lang 1983, 140f.

당시 상황에서 그의 연설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아니면 시인이 네스토르의 연설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기에-잘 알려진 인물들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인물 소개를 예외적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 중 어떤 답변을 택하든지 간에 연설 앞에 등장하는 네스토르에 대한 “인물 소개”가 앞서 언급한 다섯 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해당 연설에 대해 청중으로부터 자신이 바라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지금까지 <일리아스>에 나타나는 “인물 소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에 공통된 성격을 확인한 동시에 이들 중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가 속하는 세 번째 종류의 인물 소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번째 인물 소개의 사례들을 모두 열거했는데, 이제부터는 테르시테스에 대한 인물 소개 및 그가 행하는 연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부적합한 사례를 배제해나갈 것이다.

우선 이 사례들 가운데 우칼레론과 안테노르에 대한 소개는 나머지 사례들과 함께 묶이기 어렵다. 나머지 경우들과는 달리 이들의 연설 직후에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즉 승인이나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네 사람에게 대한 소개 이후 등장하는 연설은 공식적인 장소인 “집회(ἀγορή)”나 “회의(βουλή)”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들은 공적인 승인이나 거부의 대상이 되고, 그로써 이어지는 사건의 시발점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예견하거나 심지어는 그 결과를 미리 암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칼레론과 안테노르에 대한 인물소개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부분이 비록 헬레네의 미모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신빙성을 부여해주는 하지만, 막상 두 사람의 ‘잡담’은 공식적인 승인의 대상은 아니다. 두 사람의 연설은 헬레네의 비길 데 없는 미모를 강조함으로써 임박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는 오히려

가장 먼저 언급한 “배들의 목록”에 등장하는 소개 장면의 효과에 더 가깝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물 소개”의 세 번째 종류로부터 돌론에 대한 시인의 소개 역시 제외할 것이다. 물론 돌론의 연설이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헥토르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 받음으로써 10권의 이야기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의 경우와는 달리, 소개 장면을 통해 시인이 제공해주는 돌론에 대한 설명은 그가 행하는 연설 자체를 판단하는데 적용할만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며, 그 결과 소개 장면과 이어지는 연설의 내용은 나머지 세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sup>17</sup>

우칼레론과 안테노르, 그리고 돌론을 제외하면 이제 앞서 언급한 세 번째 분류의 인물 소개에 해당하는 것은 칼카스, 네스토르, 그리고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는 대목인데, 이 세 번의 인물 소개들은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 첫 번째는 이어지는 연설을 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뒤따르는 연설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승인 여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 셋 중에서 칼카스에 대한 소개는 네스토르와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와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네스토르와 테르시테스에 대한 인물 소개가 그들의 연설 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칼카스에 대한 소개는 연설 방식과는 무관한, 연설 내용에 이론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스토르와 테르시테스의 경우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연설의 권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sup>17</sup> 돌론에 대한 소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분류, 즉 전투 과정에서의 “소개 장면”에 더욱 가깝다. 316행에 제시된 그의 장점인 “발이 빠른(ποδώνυχης)”이라는 묘사 역시, 이후 그가 맞이할 운명을 감안하면 디오메데스가 그를 상대로 보여주는 탁월한 창شم씨를 둔 보이게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이지만, 칼카스의 연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칼카스의 사례가 인물 소개를 통해 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의 판단을 유도하는 것-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되기에, 칼카스에 대한 인물 소개를 가장 먼저 다룰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인물 소개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시인이 칼카스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2.1. 칼카스에 대한 소개

아폴론이 내린 역병으로 아카이아 인들이 큰 고통을 겪자, 아킬레우스는 회의를 소집한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이 그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예언자나 사제, 또는 해몽가에게 이 임무를 맡길 것을 제안하는데, 이 제안은 사실상 가장 뛰어난 예언자인 칼카스를 향한 요청에 다름 아니다. 이 요청에 답변하기 위해 일어서는 칼카스를 시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아킬레우스)가 실로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에 앉자, 좌중 가운데 일어난 사람은 테스토르의 아들 칼카스, 단연 으뜸인 새점쟁이였도다.

그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일을 알고 있었고,  
아카이아 인들의 함대를 일리오스로 이끌고 왔으니,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에게 부여한 예언능력 덕분이었노라.

ἤτοι ὁ γ' ὡς εἰπὼν κατ' ἄρ' ἔξετο· τοῖσι δ' ἀνέστη

Κάλχας Θεστορίδης οἰωνοπόλων ὄχ' ἄριστος,

ὅς ἤδη τά τ' ἐόντα τά τ' ἐσσόμενα πρό τ' ἐόντα,  
 καὶ νήεσσ' ἠγήσατ' Ἀχαιῶν Ἴλιον εἴσω  
 ἦν διὰ μαντοσύνην, τήν οἱ πόρε Φοῖβος Ἀπόλλων.<sup>18</sup> (1.69~73)

칼카스에 대한 시인의 소개는 앞서 설명한 세 번째 “인물 소개”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른 무엇보다 그 다음에 이어질 칼카스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아니 공적인 승인을 얻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청중에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칼카스가 지닌 예언자로서의 능력으로, 회의장에 모여있는 아카이아의 장수들은 물론이고 시인의 공연을 듣고 있는 청중도 칼카스가 뛰어난 예언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칼카스는 보통 예언자가 아니라 아카이아의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단연 으뜸(ὄχ' ἄριστος)”인 자로, 이러한 시인의 평가는 그가 과거에 이룬 업적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일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sup>19</sup>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아카이아 군을 트로이아로 데리고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아카이아 군의 트로이아 원정 자체가 바로 그의 예언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칼카스의 발언이 지닌 권위는 다름 아닌 예언의 신 아폴론에 의해 확고한 것이 된다. 따라서 아킬레우스의 보호를 확실하게 보장 받은 후 시작되는 그의 연설은 작품 내외로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1.93~100). 그가 해석한 신의 뜻(θεοπροπία)은 아카이아 군 최고 사령관 아가멤논의 행위에 대한 공식적이고도 최종적인 판결이다.

<sup>18</sup> <일리아스> 원문은 David E. Monro와 Thomas W. Allen이 편집한 *Homeri Opera in five volumes*, Oxford, 1920으로부터 인용했으며, 인용된 원문의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sup>19</sup> 70행의 “τ” 발음을 이용한 alliteratio를 통해 시인은 칼카스의 지식이 가진 권위-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되는-에 대해 청중의 주의를 강력하게 환기하고 있다.

가장 뛰어난 “새점쟁이”로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인물, 그 능력이 이미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 의해 보장되기까지 한 인물이 전하는 신탁에 대한 겸허한 복종은 당위 그 자체이다. 하지만 최고 사령관 아가멤논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누구나 보일 것이라 기대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반응을 보인다. 그는 신탁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데,<sup>20</sup> 그 대가는 이미 분배가 끝난 다른 아카이아 인의 “명예의 선물(γέρας)”을 빼앗는 것으로만 지불 가능한 것이다.<sup>21</sup>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태도가 칼카스의 연설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가멤논이 칼카스의 연설을 받아들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칼카스의 연설에 대해 아가멤논이 보이는 비상식적인 반응은 이후 발생하는 아킬레우스와의 불화에 대한 그의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칼카스에 대한 시인의 소개는 앞서 살펴본 소개 장면의 두 가지 특징을 분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설은 “회의”라는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공적인 승인의 대상이 되고, 인물 소개를 통해 시인이 그에게 부여한 신의 권위에 의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어서 네스토르의 소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 2.2. 네스토르에 대한 소개

네스토르에 대한 시인의 소개 역시 칼카스에 대한 소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

<sup>20</sup> 1.106~120.

<sup>21</sup> 1.131~139.

아트레우스의 아들 또한 분노하고 있었은즉, 좌중 가운데 네스토르가,  
 감미로운 말솜씨와 낭랑한 목소리를 지닌 켈로스 인들의 연설가가 일어섰으니,  
 그의 혀로부터는 꿀보다 더 달콤한 음성이 흘러나오곤 했노라.  
 이미 그의 눈앞에서 죽어 없어질 인간들의 두 세대가  
 스러졌으니, 그들은 예전 그와 함께 신성한 켈로스에서  
 태어나고 길러졌던 이들로, 이제 그는 세 번째 세대를 다스리노라.

Ἀτρεΐδης δ' ἐτέρωθεν ἐμήνιε· τοῖσι δὲ Νέστωρ  
 ἠδυεπῆς ἀνόρουσε λιγύς Πυλίων ἀγορητής,  
 τοῦ καὶ ἀπὸ γλώσσης μέλιτος γλυκίων ῥέεν αὐδή·  
 τῷ δ' ἤδη δύο μὲν γενεαὶ μερόπων ἀνθρώπων  
 ἐφθιάθ', οἳ οἳ πρόσθεν ἅμα τράφεν ἠδ' ἐγένοντο  
 ἐν Πύλῳ ἠγαθήν, μετὰ δὲ τριτάτοισιν ἄνασεν· (1.247~252)

크뤼세이스를 돌려주는 문제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흥분한 아가멤논은 크뤼세이스를 돌려주는 대가로 아킬레우스가 받은 “명예로운 선물(γέρας)”인 브리세이스를 빼앗겠노라 선언한다. 이러한 모욕에 분기탱천한 아킬레우스가 다시는 전장에 나서지 않겠노라 맹세하자, 앞으로 “아카이아 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sup>22</sup> 두 사람의 불화를 중재하기 위해 네스토르가 몸소 노구(老軀)를 일으킨다. 위의 인용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칼카스를 소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청중이 네스토르의 연설을 평가할 수 있게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칼카스가 지닌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부각시켜 청중의 승인을 받았듯이, 시인은

<sup>22</sup> 1.2.

소개 장면을 통해 네스토르가 중재자로서 가진 기량을 작품 내외적으로 각인시킨다.

먼저 시인은 네스토르의 탁월한 말하기 능력에 대해 공을 들여 설명해준다. 네스토르에 대한 소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감미로운 말솜씨(ἡδυεπής)”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를 통틀어 여기서 단 한 번만 사용될 뿐이기예(hapax legomenon),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시인이 이 표현을 네스토르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슷한 연대의 작품들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정확한 의미를 유추해내는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ἡδυεπής”는 <호메로스 찬가>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 각각 두 번씩 등장하는데, 이중 세 번은 무사이 여신들을,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시인을 꾸미고 있다.<sup>23</sup> 이로부터 미루어볼 때, “ἡδυεπής”라는 형용사는 중재자, 즉 설득을 위한 연설가로서의 뛰어난 기량을 청중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시인이 세심하게 선별하여 네스토르에게만 특별히 부여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sup>24</sup>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이어지는 행에 등장하는 “꿀”와 “흐름”과의 유비를 통해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청중을 매혹시키는 말솜씨를 묘사하는데 있어 “꿀” 혹은 “흐름”과의 유비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sup>25</sup> “꿀”은 청중들이 듣기에 즐거운 내용이나 말투를, 그리고 “흐름”은 끊이지 않고 유창하게 이야기를 할

<sup>23</sup> “ἡδυεπείαι Μοῦσαι” (Hes.Th.965f.&1021f.), “Μοῦσαι ἡδυεπεῖς” (hom.h.32.1f.), “ἀοιδός...ἡδυεπής” (hom.h.21.3f.).

<sup>24</sup> 또한 이 단어 선택으로부터 시인이 네스토르에 대해 갖고 있는 강한 동질감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명백하게 시인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등장인물이다: “Nestor is one of Homer’s favourite characters; in his action, and more especially in his speeches, the poet dwells loving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ld man.” (Willcock 1978, 192).

<sup>25</sup> Od.12.187, Hes.Th.39f.&96f.(=hom.h.25.4f.), Hes.Op.582f., hom.h.19.17f. (Latacz 2000, 104).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sup>26</sup> 이 두 가지 속성이 바로 “ἡδυεπής”라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다.<sup>27</sup> 여기에 이르러 청중은 시인이 네스토르의 말솜씨를 어느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지 알게 된다. 하지만 시인은 설명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네스토르가 얼마나 감미롭게 말하는지 잠시 직접 들려주기까지 한다. “꿀”과 “흐름”과의 유비를 활용하고 있는 249행의 단어 선택과 배치를 주목해보면 휴지마디(caesura) 직후 소단락 cola)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소리로 시작하게끔 단어들이 안배되어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시인이 시행의 내용과 울림을 일치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설가로서 그의 능력과 권위를 강화하고자 한다.

앞서 신에게 부여 받은 전지적인 지식과 과거의 성공한 예언을 통해 칼카스의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뒷받침했다면, 연설가로서의 탁월함을 입증할 근거로 시인은 네스토르의 노령을 강조한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은 연설을 판단하도록 시인이 제시하고 있는 “노령”이라는 기준이, 칼카스의 소개 장면에서 제시되었던 정보에 비하면 연설가로서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뛰어난 연설가의 중요한 기교 중 하나가 바로 적절한 “선례(paradeigma)”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해소된다.<sup>29</sup> 얼핏 노인네의 장황한 무용담처럼 들리는 네스토르의 연설은 <일리아스> 전체를 통틀어 이러한 기교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전범(exemplum)이며, 그의

<sup>26</sup> Ibidem.

<sup>27</sup> “Die Komposita auf -επής charakterisieren die Wirkung des Redners auf seine Zuhörer.” (Latacz 2010, 71).

<sup>28</sup> “τοῦ καὶ ἀπὸ γλώσσης μέλιτος γλυκίων ῥέειν αὐδῆ.” 또한 세 번째 음보(foot)부터 무거운 장장격(spondee)이 배제된 채 경쾌한 장단단격(dactyl)으로만 구성된 덕분에, 듣는 이는 “물 흐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sup>29</sup> Austin 1966, 300 & Edward 1988, 98f.

노령이 가져다 준 풍부한 경험이야말로 이러한 기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sup>30</sup> 따라서 네스토르에 대한 시인의 소개를 들은 청중은 이어질 네스토르의 연설에 대한 시인의 평가, 즉 그의 연설이 앞서 칼카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승인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평가했을 것이 분명하다. 앞서 칼카스의 연설에 대한 아가멤논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연설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듯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네스토르의 증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그의 연설이 지닌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라는 핵심적인 문제는 네스토르가 지닌 연설가로서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욱 큰 비중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인물 소개를 통해 네스토르의 연설이 공적인 승인을 받아 마땅하다는 점이 강조되면 될수록, 이러한 기대를 배신하는 바로 두 사람 사이의 불화는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된다.<sup>31</sup>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이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 2.3.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 장면 역시 앞의 두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연설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시되면서 시작한다. 다른 점이라면 칼카스와 네스토르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게끔 유도하는 것임에 반해, 테르시테스의 소개 장면에 언급되는 내용은 이어지는 그의 발언을

<sup>30</sup> Martin 1989, 102f.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네스토르의 연설을 직접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sup>31</sup> “The subsequent rejection of his advice is made all the more heinous and the inauspiciousness of his complete failure is given greater emphasis by an introduction that ironically augurs success.” (Richardson 1990, 38f.).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다.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제우스는 꿈의 신에게 아가멤논의 꿈속으로 찾아가 자신이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주겠노라는 거짓 계시를 전할 것을 명령한다. 꿈의 신은 명령을 받들어 네스토르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잠든 아가멤논의 꿈에 나타나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라고 현혹한다. 아가멤논은 이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아카이아의 장군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고 전쟁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는데, 그에 앞서 병사들의 사기를 시험해보자 한다. 그는 자신이 현 상황에 좌절한 것처럼 가장하고 병사들 앞에서 당장 고향 땅으로 퇴각하자고 제안한다. 물론 이는 거짓 연설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가멤논의 진정한 의도가 병사들로 하여금 전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목적과는 달리 아카이아 군 전체는 크게 동요하여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오뒷세우스가 간신히 이들을 진정시켜 집회를 재개한다. 바로 이때 테르시테스가 나서고, 시인은 연설을 시작하려는 그를 이렇게 소개한다.

그러나 테르시테스만이 여전히 터무니없는 말을 껍뻑거렸으니,  
그는 가슴에 조리 없고 장황한 말들을 담고 있어  
되는대로, 나아가 도리에 맞지 않게 왕들과 다투려 지껄여댔고,  
아르고스 인들을 웃기리라 여겨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떠벌렸노라. 그는 더없이 후안무치한 사내로서 일리오스에 왔도다.  
휘어진 다리에 한쪽 다리는 절뚝였고, 양 어깨는  
혹 때문에 가슴 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노라. 게다가 대가리  
윗부분은 뾰족하고, 거기엔 머리털이 듕성듬성 나 있었도다.  
그는 아킬레우스와 오뒷세우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였은즉,

항시 이 둘을 비난했기 때문이노라. 이때 다시 고귀한 아가멤논을  
 새된 목소리로 거세게 비방해대니, 아카이아 인들이 그에게  
 격렬한 원한을 품고 마땅히 마음 속으로 분노했도다.

Θερσίτης δ' ἔτι μούνος ἀμετροεπῆς ἐκολῶα,  
 ὃς ἔπεα φρεσὶν ἤσιν ἄκοσμά τε πολλά τε ἤδη,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 ἐριζέμεναι βασιλεῦσιν,  
 ἀλλ' ὅ τι οἱ εἴσαιτο γελοῖον Ἀργείοισιν  
 ἔμμεναι· αἴσχιστος δὲ ἀνὴρ ὑπὸ Ἴλιον ἦλθε·  
 φολκὸς ἔην, χωλὸς δ' ἕτερον πόδα· τῶ δέ οἱ ὤμω  
 κυρτῶ ἐπὶ στῆθος συνοχωκότε· αὐτὰρ ὕπερθε  
 φοξὸς ἔην κεφαλὴν, ψεδνὴ δ' ἐπενήνοθε λάχνη.  
 ἔχθιστος δ' Ἀχιλῆϊ μάλιστ' ἦν ἠδ' Ὀδυσῆϊ·  
 τῶ γὰρ νεικείεσκε· τότε αὖτ' Ἀγαμέμνονι δίω  
 ὀξέα κεκλήγων λέγ' ὄνειδεα· τῷ δ' ἄρ' Ἀχαιοὶ  
 ἐκπάγλως κοτέοντο νειμέσσηθέν τ' ἐνὶ θυμῷ. (2.212~223)

첫 행에 등장하는 “터무니없는 말(ἀμετροεπῆς)”이란 표현이 시선을 잡아  
 끄는데, 이 표현은 특히 네스토르를 수식하던 “감미로운 말솜씨(ἡδυεπής)”와  
 대비를 이룸으로써 더욱 두드러진 인상을 남긴다. 이 단어 역시 “ἡδυεπής”와  
 같이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형용사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어지는 행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테르시테스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조리 없고 장황한(ἄκοσμά τε πολλά τε)”테다가  
 “되는대로(μάψ)” 이루어지다 보니 “도리에 맞지 않아(οὐ κατὰ κόσμον)” 끝내  
 “웃음거리(γελοῖον)”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어서 시인은 217행부터

219행에 걸쳐 테르시테스의 추악한 외모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첫 번째로 시인이 자신의 입으로 등장 인물의 외모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는 <일리아스>에서 이곳 외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두 번째로는 앞의 두 인물 소개들과는 달리-연설에 앞서 제시되는 인물 소개의 첫 번째 성격을 감안했을 때-연설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외모에 대한 묘사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테르시테스에 대한 인물 소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외모에 대한 묘사가 끝나면 다시 테르시테스의 연설과 관련된 정보가 이어진다. 212행부터 216행이 그의 연설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220행부터 223행까지는 그러한 연설의 결과, 즉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다른 아카이아 인들을 얼마나 불쾌하고 화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 우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인이 인물 소개를 통해 청중으로 하여금 이어지는 테르시테스의 연설을 부정적으로, 다시 말해 공적인 승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테르시테스의 연설에 대한 시인 자신의 평가이기도 하다. 칼카스와 네스토르를 소개할 때와는 달리, 시인이 테르시테스의 연설에 대해 아카이아 군이 드러내는 분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인이 테르시테스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칼카스와 네스토르의 소개 장면에서 사용된 표현들과는 그 성격에 있어 차별화된다는 점을 통해 한층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217행의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들이 <일리아스>의 다른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μάψ”는 <일리아스>를 통틀어 앞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여섯 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행의 맨 앞에 나타나는 경우 그 표현을 사용하는 등장 인물은 예외 없이 극심한 감정적 동요 상태에 놓여있다.<sup>32</sup>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μάψ”로 어떤 시행이 시작할 경우, 청중은 그것을 등장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로서 받아들였으리라는 점이다. 게다가 “μάψ”는 감정적인 동요 그 이상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Frisk는 “μάψ”를 “blindlings, umsonst, vergebens”로 번역하고 있는데,<sup>33</sup> 이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는 상태”를 지시한다. 즉, 이 단어는 이미 부정적인 가치 평가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다음에 나오는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을 살펴보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은 <일리아스> 전체에서 네 번 반복해서 등장한다.<sup>34</sup> 테르시테스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 이 문구는 외관상의 혼란이나 무질서를 지시하기보다는, 말하는 이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관습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음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8권 204행 이하를 살펴보자.

실로 그대는 그(아킬레우스)의 상냥하고 강력한 전우를 살해한데다,

그의 무구를 도리에 맞지 않게 머리와 어깨로부터 벗겨내

<sup>32</sup> 2.214를 제외한 여섯 번 중 네 번은 행의 초두에(2.120, 5.759, 13.627, 20.298), 한 번은 다섯 번째 음보의 princeps에(15.40), 나머지 한 번은 세 번째 음보의 biceps에(20.348) 위치한다. 2.214와 같이 초두에 “μάψ”가 등장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인물 들은 각각 두려움(2.120), 분노(5.759, 13.627), 연민(20.298)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초두가 아닌 곳에 나타나는 나머지 두 경우도 말하는 이의 두려움(15.40)과 당혹감(20.348)을 드러내고 있다.

<sup>33</sup> Frisk 1973.

<sup>34</sup> 2.214, 5.759, 8.12, 17.205.

취하였구나.

τοῦ δὴ ἑταῖρον ἔπεφνες ἐνῆα τε κρατερόν τε,  
τεύχεα δ' οὐ κατὰ κόσμον ἀπὸ κρατός τε καὶ ὤμων  
εἶλεν· (8.204~206)

(밑줄은 필자 강조)

위 인용문은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쓰러뜨린 후, 시체로부터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벗겨내 스스로 입는 모습을 보고 제우스가 탄식하는 부분이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전사의 무구를 그보다 못한 자가 빼앗는 것은 <일리아스>의 세계에서 “도리에 맞지 않는”, 원칙을 넘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일리아스>에서 등장 인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척도는 바로 해당 인물이 갖추고 있는 “무용(ἀριστεία)”이다. 이는 작품 내 세계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자질로, 바로 이 “무용”이라는 능력을 통해 전장에서 영웅의 가치는 위계적으로 평가된다. 즉, 두 영웅이 맞붙었을 때 더욱 강력한 자가 승리함으로써 “무용”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재확인 받는 동시에, 그 기준에 의해 상대보다 더 우월한 인물로 평가 받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더 강한 자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제압하고 그의 무구를 취하는 행위는 <일리아스>의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를 구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35</sup> 따라서 아킬레우스의 무구-비록 그가 직접 입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를 그보다 약한

---

<sup>35</sup> <일리아스>의 세계는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화된 세계이다. 따라서 약한 자가 강한 전사를 쓰러뜨리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이 장면에서 헥토르가 아킬레우스를 제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무구를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리아스>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Nur würdige, vornehme Kräfte dürfen an den großen Gestalten ihre Wirkungen üben, denn wir stehen in einer dichterischen Welt, in der nichts mechanisch und plump und von ungefähr ist. Im Kampf zweier Krieger miteinander fällt die Entscheidung regelmäßig nach dem relativen Wert der Gegner aus, und in der Hand eines großen Helden bringt die Waffe selbst dann augenblickliche Vernichtung, wenn sie ihr Opfer nur obenhin anrührt.” (Fränkel 1962, 40).

전사인 헥토르가 취하는 행위는 그러한 질서를 전복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는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라는 문구로써 헥토르의 행위가 ‘선을 넘어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up>36</sup> 또 다른 부분에서도 “οὐ κατὰ κόσμον”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함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신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 좋은 예이다.

만약 누군가 신들로부터 빠져나가서

트로이아 인들이나 다나오스 인들을 도우려 하는 것을 내 알게 된다면,

그는 도리에 맞지 않게 얻어맞고는 올림포스로 쫓겨오게 되리라.

ὄν δ' ἂν ἐγὼν ἀπάνευθε θεῶν ἐθέλοντα νοήσω

ἐλθόντ' ἢ Τρώεσσιν ἀρηγέμεν ἢ Δαναοῖσι,

πληγείς οὐ κατὰ κόσμον ἐλεύσεται Οὐλύμπον δέ· (8.10~12)

(밑줄은 필자 강조)

위 인용문에서의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 지닌 함의는 이중적이다. 우선 제우스가 판단하기에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얻어맞는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로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체험은 “축복받은 신들(θεοὶ μάκαρες)”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이 헤카이스토스의 말대로 “필멸의 인간들 때문(ἔνεκα θνητῶν)”<sup>37</sup>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제우스의 징벌은 그 자체로 “οὐ κατὰ κόσμον”하다. 또한 매질이란 징벌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제우스의 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결과로, 그가 보기에 이러한 위반행위는 앞서

<sup>36</sup> Adkins의 경우 이를 귀족사회의 가치 기준과 관련 지어 설명하고 있다: “...speech or behaviour which the ἀγαθοί as a group regard as unbeautiful, unpleasing, disorderly, will be stigmatized as οὐ κατὰ κόσμον; and where ἀρετή is affected, its being οὐ κατὰ κόσμον will override the question of its truth.” (Adkins 1972, 15).

<sup>37</sup> 1.574.

헥토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리에 맞지 않는”, 정해진 선을 넘어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οὐ κατὰ κόσμον”한 것이다.<sup>38</sup>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그가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견이나 불복종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우스의 이러한 절대적인 권위는 그가 가진 압도적인 힘에 의해 흔들림 없이 유지되며, 이러한 권위는 올림포스라는 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이기도 하다. 만약 올림포스의 신들 중 누군가가 그의 명령에 반항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할 재앙은 명령에 거스르는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올림포스의 구성원 모두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sup>39</sup> 따라서 제우스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οὐ κατὰ κόσμον”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표현이 합쳐지는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결합되는 동시에 추가적인 의미가 덧붙여진다. 감정적인 동요 상태를

<sup>38</sup> 이러한 면모는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을 비슷한 전형적 문구 “εὖ κατὰ κόσμον”의 쓰임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εὖ κατὰ κόσμον”은 <일리아스> 전체에 걸쳐 네 번 등장하는데,<sup>38</sup> “οὐ κατὰ κόσμον”과는 달리 모두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질서정연함, 혹은 정돈된 모습을 지시하는데 제한된 표현이다. 이 중 두 번은 전투를 앞둔 말들이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이룬 모습에 대한 묘사에(11.48&12.85), 한 번은 땅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무구들을 표현하는데(10.472), 나머지 한 번은 식사장면에서 고기를 솜씨 좋게 다루는 모습을 그려내는데(24.622) 사용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인의 탁월한 기교로서, 그는 미세한 수정을 통해서 단순한 시각적 감상을 드러내는 건조하고 평면적인 문구(εὖ κατὰ κόσμον)를 중대한 위반행위를 지시하는 심화된 문구(οὐ κατὰ κόσμον)로 변모시킨 것이다.

<sup>39</sup> 15권에서 아테네가 아레스를 꾸짖는 장면에서 제우스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것에 도전할 경우 발생할 치명적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아레스는 자신의 아들 아스칼라포스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는, 위에 인용된 제우스의 금족령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복수를 하겠다며 전장으로 뛰어들려 한다. 이때 아테네가 아레스를 제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니면 그대(아레스) 자신이 수많은 불행을 겪고서는 / 괴로워한 뒤 강제로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오는 것으로 모자라 / 나머지 신들에게까지 빠짐없이 큰 재앙의 씨를 뿌리길 바라는 거요? / 그분(제우스)은 담대한 트로이아 인들과 아카이아 인들 곁을 지체 없이 / 떠나 우리를 파괴 속으로 몰아넣고자 올림포스에 오셔서 / 책임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를 차례 차례 붙잡으실 테니까 말이오(ἤ θέλεις αὐτὸς μὲν ἀναπλήσας κακὰ πολλὰ / ἄψ ἴμεν Οὐλύμπον δὲ καὶ ἀχνύμενός περ ἀνάγκη / αὐτὰρ τοῖς ἄλλοισι κακὸν μέγα πᾶσι φυτεῦσαι; / αὐτίκα γὰρ Τρώας μὲν ὑπερθύμους καὶ Ἀχαιοὺς / λείψει, ὃ δ' ἡμέας εἴσι κυδοιμήσων ἐς Ὀλύμπον / μάρψει δ' ἔξειγς ὅς τ' αἴτιος ὅς τε καὶ οὐκί).” (15.132~137).

지시하는 “μάψ”와 정해진 질서나 관습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는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의 결합은 위반행위에 대한 지적은 물론 그 행위에 대한 반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은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는 장면 외에도 5권 759행에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반복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사 전체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제우스 아버지여, 저런 가혹한 짓을 하는 아레스에게 마땅히 분노가 치밀지 않나요?

저토록 많은 그리고 저토록 훌륭한 아카이아 인들을 도륙하고 말았는데도, 되는대로, 나아가 도리에 맞지 않게요. 나는 고통스러운 반면 저 들은 편안하게, 퀴프리스와 은궁의 아폴론은 즐거워하고 있군요.

저 정신 나간 놈을 풀어놓고선 말이죠. 법도라곤 전혀 모르는 놈을.

Ζεῦ πάτερ, οὐ νεμεσίζη Ἄρη τάδε καρτερά ἔργα,  
 ὁσσάτιόν τε καὶ οἷον ἀπώλεσε λαὸν Ἀχαιῶν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 ἐμοὶ δ' ἄχος, οἱ δὲ ἔκηλοι  
 τέρπονται Κύπρις τε καὶ ἀργυρότοξος Ἀπόλλων,  
 ἄφρονα τοῦτον ἀνέντες, ὃς οὐ τίνα οἶδε θέμιστα; (5.759~63)

(밑줄은 필자 강조)

“μάψ”와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 결합한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라는 정형구는, 위 인용문에서 헥토르와 동행하며 아카이아 인들을 학살하는 아레스의 만행에 대한 헤라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우리는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 시각적 층위에서의 정돈된 가지런함보다는, 말하는 이가 그 대상이 관습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문구이며, “μάψ” 또한 행위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암시해주는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위 인용문에서 헤라는-“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라고 말하는 등장 인물들이 그렇듯이-아레스의 행위를 “선을 넘어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61행의 “법도라곤 전혀 모르는 놈(δς οὐ τινα οἶδε θέμιστα)”이라는 대목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앞의 인용문에서 그저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라고 말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헤라는 아레스의 행동이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레스의 아카이아 군에 대한 일방적이고 고삐 풀린 살육 행위는 제우스와 헤라가 타협함으로써 간신히 유지되는 양 군 사이의 균형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러한 행동은 결국 올림포스의 신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을 낳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757행에서 헤라가 제우스에게 어째서 “마땅히 분노를 나타내지(νεμεσίζη)”<sup>40</sup> 않느냐고 되묻는 장면은 아레스에 대한 헤라의 판단이 이와 같은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한 “법도(θέμις)”라는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θέμις”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공인된 관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에 “μάψ”가 덧붙여 짐으로써, 이 정형구를 말하는 이는 자신이 목격한 행위를 ‘분노해야 마땅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시인이 테르시테스의 소개 장면에서도 헤라와 마찬가지로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과 더불어 “νεμέσσηθέν”이라는 동사-“νεμεσίξασθαι”와 같은 의미를 가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sup>40</sup> “νεμεσίξασθαι”는 단순히 화가 났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νέμεσις”의 파생어인 이 동사는, 주어진 몫이나 위반해선 안 될 선을 넘어서 대상에 대해 느끼는 “정당한” 분노를 뜻한다: “...it(i.e. νέμεσις) is the feeling of disapproval aroused in the on-looker by an improper action.” (Willcock 1978, 200). 따라서 “νέμεσις”는 다른 분노의 감정들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종류의 분노로서, 윤리적인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Nemesis is in fact a specific kind of anger; we might call it “righteous indignation.” Nemesis is thus different from *achos* or *cholos*; those *pathēmata* come upon a man immediately, as pain comes with a blow. Nemesis is anger mediated by the social sense; a man not only feels it but feels himself correct in feeling it.” (Redfield 1994, 117).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은 말하는 이가 직접 어떤 사람이나 사태에 대한 강력한 가치판단, 즉 윤리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문구이며, 이 때의 판단은 말하는 이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공동체가 승인하는 보편적인 가치 혹은 질서에 근거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부터 앞서 두 사람에게 대한 인물 소개와의 차이점이 발생한다. 칼카스와 네스토르를 소개하면서 시인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이어지는 연설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청중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는 반면,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 장면에서 시인은 청중이 그의 연설을 접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sup>41</sup> 즉, 시인은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라는 정형구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헤라가 아레스에게 내린 것과 동일한 판단을 테르시테스의 연설에 대해 내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외관상 객관적인 정보 제공 이면에 칼카스와 네스토르의 연설에 대한 시인의 가치판단이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시인의 평가가 결코 자신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테르시테스에 대한 인물 소개에 나타난 시인의 태도는 단지 인물 소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리아스> 전체를 통틀어서도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시인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등장 인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것처럼 강력한 가치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기피하기 때문이다.<sup>42</sup>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는 물론이고 “μάψ”와 “οὐ

<sup>41</sup> 더 나아가 앞의 두 소개 장면을 통해 시인은 이어지는 연설의 결과, 즉 그것이 공적인 승인을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테르시테스의 소개 장면에서 시인은 아카이아인들이 “그에게 마땅히 분노”했노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공식적으로 거부당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문구이다.

<sup>42</sup> “What is avoided is the expression in the narrative of certain sorts of judgment: on the rightness and wrongness of action, on the sense or folly of decisions and moods. Such expression of judgment

κατὰ κόσμον”이 각각 쓰일 때조차 이들이 테르시테스에 대한 인물 소개를 제외하면 모두 등장 인물들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은, 테르시테스의 인물 소개에 나타난 시인의 태도가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확인해준다.

기본적으로 <일리아스>의 시인은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노래하는 대상과의 거리를 엄격하게 지킨다. 그는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윤리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상황 묘사나 사태 보고를 통해 암시적으로 전달할 뿐,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가급적 회피한다. 시인은 그저 인물의 말과 행동, 혹은 사건의 상황을 보고할 뿐, 그에 대한 자신의 희노애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시비에 대한 판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니고선 시인은 이러한 태도를 작품 전체에 걸쳐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sup>43</sup> 청중은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시인이 보여주는 모습을 대단히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시인의 평가에 동조하여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법도”를 어기는 행위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테르시테스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이어간다.

한 행을 건너뛰고 등장하는 “αἴσχιστος” 역시 강력한 윤리적 판단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대다수의 <일리아스> 연구자들이 이 단어를 테르시테스의 추한 외모에만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지만,<sup>44</sup> 작품 내 다른 곳에서 “αἰσχρός”가 갖고 있는 의미와 이 “인물 소개”의 구조적인 특징을 감안하면 그러한 해석이 시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

is both pervasive and important in Homer, but is only rarely expressed in a direct way.” (Griffin 1986, 38).

<sup>43</sup> Fränkel 1962, 37ff.

<sup>44</sup> Willcock은 “αἴσχιστος”를 “most ugly”로 이해하고 있으며 (Willcock 1978, 200), Kirk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αἴσχιστος occurs only here of physical ugliness rather than moral turpitude.” (Kirk 1985, 139). Latacz의 해석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 (Latacz 2010, 72). 천병희 역시 이를 “가장 못생긴”으로 번역했다 (천병희 1997).

형용사 “*αἰσχροῦς*”는 테르시테스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리아스> 전체에서 여덟 번 등장하는데,<sup>45</sup> 이 단어가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 자리가 유일하다. 그리고 이들 중 단 한 번만(21.437) 비교급 형태인 “*αἰσχιον*”으로 쓰일 뿐 모두 원급으로(부사형 “*αἰσχροῦς*” 포함) 사용된다.<sup>46</sup> 이 단어가 상황을 판단하는데 쓰일 경우, 앞서 살펴본 문구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과 흡사하게 “저질러서는 안될 행위를 범한”데 따른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테르시테스에 대한 인물 소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최상급 “*αἰσχιστος*”가 이 부분에서만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달리 쓰였다고 해석할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오히려 유일하게 최상급으로 쓰인 이 단어는, 시인이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면서 보여주는 태도가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지를 더 없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바꿔 말하면, 시인은 “*αἰσχιστος*”라는 형용사를 통해 테르시테스의 말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윤리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sup>47</sup> 따라서 이 표현을 테르시테스의 외모에 대한 묘사(217~219)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20행에 등장하는 “*ἔχθιστος*”의 위치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ἔχθιστος*”는 직접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인물이 말하는 이에게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이 단어 역시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과 마찬가지로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항상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언급되는 표현으로,

<sup>45</sup> 2.119, 2.298, 3.38, 6.325, 13.768, 21.147, 23.473, 24.238.

<sup>46</sup> 원급보다 비교급이, 비교급보다는 최상급이 의미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Griffin은 시인이 직접 이야기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가치평가의 의미가 담긴 형용사의 최상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Griffin 1986, 49).

<sup>47</sup> “*Aidōs* is the most pervasive ethical emotion in Homeric society; it is basically a responsiveness to social situations and to the judgements of others... *aidōs* and *nemesis* are a reflexive pair. The *nemesis* of others evokes *aidōs* in oneself.” (Redfield 1994, 115f.).

등장인물들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렬한 적대감을 표출한다.<sup>48</sup>

내 옆에 앉아 징징대지 말아라, 박쥐 같은 놈아.

내겐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 중 네가 가장 혐오스러우니,

불화와 전쟁과 싸움만이 너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μή τί μοι ἀλλοπρόσαλλε παρεζόμενος μινύριζε.

ἔχθιστος δέ μοι ἔσσι θεῶν οἱ Ὀλυμπον ἔχουσιν·

αἰεὶ γάρ τοι ἔρις τε φίλη πόλεμοί τε μάχαι τε. (5.889~891)

(밑줄은 필자 강조)

5권 889행부터 시작하는 제우스의 이 대사는, 앞서 인용된 헤라의 탄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헤라가 아레스의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에 분노하며 제우스에게 그를 막아달라 요구하자, 제우스는 아테네로 하여금 아레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도록 명을 내린다. 명령을 받은 아테네가 디오메데스를 도와 아레스에게 상처를 입히자, 아레스는 올림포스로 돌아와 제우스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고통을 호소한다. 위의 인용문은 이런 상황에서 제우스가 아레스에게 가하는 비난이다.

아레스가 “ἔχθιστος”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올림포스의 균형을 무너뜨릴 만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행동은 “불화와 전쟁과 싸움만이 즐거움”이라는 정형구로 표현된다. 그런데 우리는 1권에서 이미 위의 인용문과 동일한 시행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up>48</sup> 1.176, 5.890, 9.158. 심지어는 원급 “ἔχθρός”조차 시인은 등장인물을 통해서만 사용한다. “ἔχθρός”는 <일리아스>에서 세 번(9.311&378, 16.77) 사용되는데, 세 번 모두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아가멤논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내겐 제우스가 양육하신 왕들 중 그대가 가장 혐오스러우니,

불화와 전쟁과 싸움만이 그대의 즐거움이기 때문이오.

ἔχθιστος δέ μοι ἔσσι διοτρεφέων βασιλῆων·

αἰεὶ γάρ τοι ἔρις τε φίλη πόλεμοί τε μάχαι τε· (1.176~177)

(밑줄은 필자 강조)

위의 인용문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비난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 비난의 근거에는 아킬레우스가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아가멤논의 판단이 깔려있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킬레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부여 받은 자신의 권위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권위의 구현자인 제우스에게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아레스가 “ἔχθιστος”하게 여겨지듯이, 아카이아 군 최고 지도자인 자신에게 도전하는 아킬레우스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반하는 인물이기에 아가멤논은 그를 “ἔχθιστος”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항시 “왕들과 다투려 지껄여대는” 테르시테스의 말본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되는대로, 도리에 맞지 않게 항시 비난을 해대는” 까닭에 그는 “아킬레우스와 오뒷세우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테르시테스의 말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공인된 범도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테르시테스가 “ἔχθιστος”한 이유는 앞서 그가 시인으로부터 “αἰσχιστος”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αἰσχιστος”는 이례적으로 외모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세 행을 가운데 끼고 “ἔχθιστος”와 “대칭구도(χιασμός)”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이와 같은 구조를 감안할 때 “αἰσχιστος”를 이어지는 외모에 관한 묘사로 한정 짓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게 된다.

즉, “*αἰσχιστος*”와 “*ἐχθιστος*”라는 두 표현은 모두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 혹은 질서에 어긋난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인이 선택한 단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 장면은 나머지 두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뒤따르는 연설 내용을 청중이 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하게끔 주목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테르시테스의 소개 장면은 앞의 두 사람과는 달리 그의 연설을 부정적으로, 바꿔 말하면 공식적 승인을 얻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례적으로 그의 연설 방식 자체에 대한 시인의 강력한 가치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어지는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인물 소개에서 제시된 비판에 부합하는 결점들을 갖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결점들은 보편적인 가치 혹은 질서에 대한 위반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은 시인으로 하여금 테르시테스의 연설을 “*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이라는 정형구로 비판하게끔 만드는 근거, 즉 아카이아 군 전체는 물론이고 시인 자신도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공적인 연설의 관습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관습을 위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먼저 시인이 테르시테스 연설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리아스>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일리아스>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적인 연설의 관습을 도출해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이러한 공적인 연설의 관습을 어기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리아스>의 세계에서 공인된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시인의 이례적인

강력한 비판의 원인임을 밝혀내도록 하겠다.

### 3. 영웅적 탁월함: 무용과 연설의 견비

1권 254행부터 시작하는 네스토르의 연설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그가 늘어놓고 있는 회고담이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이 장황한 무용담이 단지 노인네의 뉘그러기가 아닌, 연설의 영향력과 설득력을 뒷받침해주는 “선례(paradeigma)”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아폴론이 부여한 예언술이 칼카스의 지식을 담보해주듯이, 네스토르의 노령이 가능케 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다양한 선례들을 제공함으로써 연설의 설득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다.<sup>49</sup> 그 덕분에 네스토르는 <일리아스>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연설가로 인정받으며,<sup>50</sup> 그의 연설은 단 한 번-1권에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시도-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네스토르가 <일리아스> 전체를 통해 가장 뛰어난 연설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가 과거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이 다름아닌 네스토르가 과거에 얼마나 탁월한 “무용”을 떨쳤는지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보다 한 세대 이상 어린 아카이아의 장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용맹을 자랑하던 옛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그들 못지 않은 무훈을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자신의 연설 속에서 끊임없이 상기시킨다.<sup>51</sup>

이와 같은 연설과 무용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그의 연설 내에서도 암시되고 있는데, 네스토르는 서로 대립하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를 일컬어

---

<sup>49</sup> 9권 429행부터 시작하는 포이닉스의 연설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아킬레우스의 양육을 담당했던 노인 포이닉스는 무려 세 개의 “선례들”을 연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한다.

<sup>50</sup> 2.370~374.

<sup>51</sup> 1.260~273.

“회의에서도 전투에서도 다른 다나오스 인들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내린다.<sup>52</sup> 이러한 평가는 단지 두 사람이 상호 독립적인 두 가지 분야에서 각각 뛰어나다는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라는 종합적인 평가이다. 바꿔 말하면, 탁월한 인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시인 자신의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아킬레우스)는 사내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집회에 참석하지도,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οὐτέ ποτ' εἰς ἀγορὴν πωλέσκετο κυδιάνειραν  
οὐτέ ποτ' ἐς πόλεμον... (1.490~491)

“사내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κυδιάνειρα)”이란 형용사는 이 대목을 제외하면 모두 “전투(μάχη)”와 결합하는 별칭(epitheton)<sup>53</sup> 으로, 이러한 별칭을 공유함으로써 전투로부터 과시되는 무용과 집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설은 동일한 명예의 원천임이 밝혀진다.<sup>54</sup> 즉, 전장에서 떨친 무용은 연설의 권위를 뒷받침해주고, 무용은 바로 집회 또는 회의에서 펼치는 연설의 성공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호 연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sup>55</sup> 진정한 “영웅적 탁월함”이란 바로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획득 가능하다. 즉, <일리아스> 전체를 관통하는 동시에 그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sup>52</sup> 1.258: “οἱ περὶ μὲν βουλήν Δαναῶν, περὶ δ' ἔστέ μάχεσθαι.”

<sup>53</sup> 4.225, 6.124, 7.113, 8.448, 12.325, 13.270, 14.155, 24.391.

<sup>54</sup> Latacz 2000, 160.

<sup>55</sup> 연설과 무용의 겸비가 영웅적 탁월함의 필수적인 조건임은 포이닉스의 연설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다. 그는 9권 440행부터 441행에 걸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대는 누구나 똑같이 겪어야 하는 전투에 대해서도 / 사내들이 단연 돋보이게 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소(...οὐ πω εἶδ' ὁμοίου πολέμοιο / οὐδ' ἀγορέων, ἵνα τ' ἄνδρες ἀριπρεπέες τελέθουσι).” 집회에서의 연설이야말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보편적 가치인 “영웅적 탁월함”은, 무용과 연설의 견비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시인 또한 이러한 가치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15권에서 아카이아의 장수들을 독려하는 토아스를 탁월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시인이 제시하는 기준들은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해준다.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안드라이몬의 아들 토아스가 말했다.

그는 아이톨리아 인물 가운데 단연 으뜸인 전사로 창술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백병전에도 뛰어났으며, 젊은이들이 논쟁을 벌일 때마다  
집회에서 그를 능가하는 아카이아 인물은 많지 않았다.

τοῖσι δ' ἔπειτ' ἀγόρευε Θόας Ἀνδραίμονος υἱός,

Αἰτωλῶν ὄχ' ἄριστος ἐπιστάμενος μὲν ἄκοντι

ἑσθλὸς δ' ἐν σταδίῃ· ἀγορῇ δέ ἐ παῦροι Ἀχαιῶν

νίκων, ὁππότε κοῦροι ἐρίσσειαν περὶ μύθων· (15.281~284)

이처럼 시인이 무용 외에도 연설을 “영웅적 탁월함”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은 작품 내에서 아이아스가 지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통해서도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이미 2권 “배들의 목록”에서 시인은 아킬레우스를 제외하면 아이아스가 가장 뛰어난 전사라고 인정한바 있다.<sup>5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아스에 대한 “인물 소개”는 그의 탁월한 무용을 감안했을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아이아스에 대한 인물 소개는 단 두 행에 불과한데, “배들의 목록”에 제시되는 아카이아의 지휘자들에 대한 소개 장면들 중 단연 가장 짧다(2.567f). 그리고 이러한 푸대접은 이어지는 3권의 “성벽 장면(τειχοσκοπία)”에서도

<sup>56</sup> 7.768f.

반복된다. 프리아모스의 질문에 헬레네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세 행 이상으로 대답하지만, 아이아스에 대해서만큼은 프리아모스가 물었을 때 단 한 행으로 대답한 후(3.229) 묻지도 않은 이도메네우스에 대해 네 행을 할애하여 소개한다(3.330~333). 16권에 등장하는 아킬레우스의 전황에 대한 분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6.73~75). 아킬레우스는 직전에 눈에 띄는 무공을 세운 아이아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아카이아 군이 위기에 처한 원인으로 디오메데스가 이전에 그랬듯이 더 이상 트로이아 군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점만을 지적한다.

이러한 홀대의 원인은 <일리아스> 전체에서 아이아스가 단 한 번도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 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sup>57</sup> 아킬레우스는 물론이고 아이아스보다 못한 무용을 지닌 오뒷세우스와 디오메데스조차 공적인 연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웅적 탁월함”을 승인 받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아이아스는 자신의 탁월한 무용에 어울리는 연설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요약하자면, 시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아스는 완전한 “영웅적 탁월함”을 갖추지 못한 ‘절름발이’ 영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웅적 탁월함”은 공적인 연설을 통해 비로소 공식적인 승인을 얻게 되고, 따라서 공적인 연설은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즉 “영웅적 탁월함”의 또 다른 조건인 무용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공적인 연설의 “관습”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따라서 보편적인 가치인 “영웅적 탁월함”을 지향하는 공적인 연설은 필연적으로 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

<sup>57</sup> 하지만 9권에서 사절로 파견된 아이아스가 내뿜는 투박하고 짧은 연설에 아킬레우스가 가장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탁월한 “무용”이 “영웅적 탁월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9.624~642).

이러한 결론은 <일리아스>에서 등장하는 공식적인 회합, 즉 “집회”와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논의들이 예외 없이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한층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무용과 연설의 견비, 즉 영웅적 탁월함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는데 성공한 다른 연설들을 살펴봄으로써 “영웅적 탁월함”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즉 공적인 연설의 관습을 준수하는 연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 3.1. 공적인 연설: 영웅적 탁월함의 공식적 승인

회의나 집회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연설이 여타 연설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름 아닌 “공식적 승인”, 바꿔 말하면 영웅적 탁월함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인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권에 등장하는 오뒷세우스의 연설은 그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 그의 연설은 집회에 참석한 아카이아인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냄으로써 성공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자 아르고스 인들은 크게 함성을 질렀고,  
아카이아 인들이 신과 같은 오뒷세우스를 칭송하자  
함선을 둘러싸고 그들의 환호성이 무섭게 울려 퍼졌다.  
ὡς ἔφατ', Ἀργεῖοι δὲ μέγ' ἴαχον, ἀμφὶ δὲ νῆες  
σμερδαλέον κονάβησαν αὐσάντων ὑπ' Ἀχαιῶν,  
μῦθον ἐπαινῆσαντες Ὀδυσσοῦ θείοιο: (2.333~335)

아카이아 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그의 연설은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호응을 얻어 공식적으로 승인 받는다. 7권과 9권에 등장하는 디오메데스의 연설과 그에 뒤따르는 정형구 역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드러낸다.<sup>58</sup> 각각 집회와 회의에서 행해지는 디오메데스의 두 연설은 모두 전쟁을 지속하자는 공식적인 명령(directive)으로 공적인 승인의 대상이며, 오뒷세우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카이아 군 전체의 환호성이 그의 연설이 승인되었음을 알려준다. 물론 “환호”가 공적인 승인을 나타내는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 공적인 발언을 행함에 있어 실패를 모르는 네스토르에 대한 반응은 앞서 언급한 경우들보다 간결하게 묘사되지만, 그의 연설이 공적인 승인을 획득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완곡한 명령에 대해 아가멤논의 찬사가 뒤따르고,<sup>59</sup> 모든 왕들이 그에 찬성하며,<sup>60</sup> 아카이아 군 전체가 복종하기 때문이다.<sup>61</sup>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승인은 그들의 명령이 관철되었다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연설이 공적인 승인을 얻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영웅적 탁월함을 지녔다는 공동체 전체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부터 살펴볼 세 사람의 연설은 흥미로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오뒷세우스와 디오메데스, 그리고 네스토르가 모두 동일한 수사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영웅적 탁월함”의 한 축인 “무용”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러면 세 사람의 연설을 순서대로 분석하면서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사적 전략을 파악해보겠다.

위에서 언급한 오뒷세우스의 연설은 아가멤논의 퇴각 제안에 부화뇌동하여

<sup>58</sup> 7.403f&9.50f: “이렇게 말하자 말을 길들이는 디오메데스의 연설에 감탄하고는 / 아카이아의 아들들은 모두 환호성을 울렸다(ὡς ἔφαθ', οἱ δ' ἄρα πάντες ἐπίαχον υἷες Ἀχαιῶν / μῦθον ἀγασσάμενοι Διομήδεος ἵπποδάμοιο).”

<sup>59</sup> 2.370~374.

<sup>60</sup> 7.344.

<sup>61</sup> 9.79.

귀향을 서두르는 아카이아 군 전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연설의 승인을 위해 필수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즉 자신의 “영웅적 탁월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활용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은 다름 아닌 “비난(νεῖκος)”이다. 다음과 같은 오뒷세우스의 연설을 살펴보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왕이시여, 지금 아카이아 인들은 실로 그대를  
 필멸의 인간들 중에서 가장 비난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려 할뿐더러,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에서 이곳으로 향하던 중에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일리오스를 함락시키고서야  
 귀국하겠노라 장담했건만 이제 그 장담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나 남편 잃은 아낙네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서로 한탄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Ατρεΐδῃ νῦν δὴ σε ἄναξ ἐθέλουσιν Ἀχαιοὶ  
 πᾶσιν ἐλέγχιστον θέμεναι μερόπεσσι βροτοῖσιν,  
 οὐδέ τοι ἐκτελέουσιν ὑπόσχεσιν ἣν περ ὑπέσταν  
 ἐνθάδ’ ἔτι στείχοντες ἀπ’ Ἄργεος ἵπποβότοιο  
 Ἴλιον ἐκπέρσαντ’ εὐτείχεον ἀπονέεσθαι.  
 ὡς τε γὰρ ἢ παῖδες νεαροὶ χῆραὶ τε γυναῖκες  
 ἀλλήλοισιν ὀδύρονται οἶκον δὲ νέεσθαι. (2.284~290)

오뒷세우스의 논리는 만약 자신의 연설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카이아 군은 “어린아이”나 “과부”보다 나을 것 없는 존재들이므로, 반드시 자신의 연설을 승인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질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상대를 자극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러한

모습은 다음과 같은 디오메데스의 연설에서도 반복된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내 먼저 그대의 어리석음과 맞서 싸울 것인즉..

그것이 집회의 법도이니, 내게 화내지 마십시오.

일전에 그대는 다나오스 인물 앞에서 내 용기를 헐뜯으며

내가 싸울 줄도 모르는 겁쟁이라고 말했으니, 이 사실을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든 아르고스 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교활한 크로노스의 아들은 그대에게 절반만을 내주었을 뿐이니,

왕홀을 주어 그대가 모두에게 존중 받도록 해주었지만

가장 위대한 힘인 용기를 주지는 않았소이다.

설마하니 그대는 진심으로, 그대가 말한 것처럼, 아카이아의 아들들이

싸울 줄도 모르는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Ἄτρεΐδῃ σοὶ πρῶτα μαχήσομαι ἀφραδέοντι,

ἢ θέμις ἐστὶν ἀναξ ἀγορῆ: σὺ δὲ μή τι χολωθῆς.

ἀλκὴν μὲν μοι πρῶτον ὀνειδίσας ἐν Δαναοῖσι

φᾶς ἔμεν ἀπτόλεμον καὶ ἀνάλκιδα: ταῦτα δὲ πάντα

ἴσασ' Ἀργείων ἡμὲν νέοι ἠδὲ γέροντες.

σοὶ δὲ διάνδιχα δῶκε Κρόνου παῖς ἀγκυλομήτεω:

σκήπτρω μὲν τοι δῶκε τετιμῆσθαι περὶ πάντων,

ἀλκὴν δ' οὐ τοι δῶκεν, ὅ τε κράτος ἐστὶ μέγιστον.

δαιμόνι' οὕτω που μάλα ἔλπει υἴας Ἀχαιῶν

ἀπτολέμους τ' ἔμεναι καὶ ἀνάλκιδας ὡς ἀγορεύεις; (9.32~41)

(밑줄은 필자 강조)

디오메데스는 퇴각을 명하는 아가멤논의 연설에 반발하며 자신이 그의 어리석음에 “맞서 싸울 것(μαχήσομαι)”이라 선언하고, 이러한 싸움이 “집회에서의 법도(ἡ θέμις ἐστὶν ἀγορῆ)”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양해를 구한다. 이 대목으로부터 우리는 “비난”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뒤따르는 내용은 오뒷세우스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논리를 따르는데, 아가멤논이 권위에 걸맞는 “용기(ἀλχη)”를 지니지 못했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즉, 아가멤논이 자신의 연설을 거부한다면 그는 자신이 “가장 위대한 힘인 용기”를 결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sup>62</sup>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디오메데스가 “비난”의 수사를 결투를 의미하는 “μάχεσθαι”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대결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공식식상에서 “비난”이라는 수사적 전략이 활용될 때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비난의 연설들이 모두 동일한 결점, 즉 ‘전투에 대한 기피’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무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전투에 나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장에 나설만한 능력도 없는 인물이 연설을 통해 상대방의 결점, 즉 그가 무용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난”의 수사가 무용의 결핍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비난”을 행하는 인물이 스스로 무용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꿔 말하면, “비난”의 수사는 자신이 “영웅적 탁월함”의 필수적 조건인 무용을 지니고 있다는 자기 확인이자 과시이다. 더 나아가 오뒷세우스와 디오메데스, 그리고 네스토르는

---

<sup>62</sup> 동시에 디오메데스는 아카이아 군 전체 역시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의 연설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싸울 줄도 모르는 겁쟁이”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웅적 탁월함”의 한 축인 무용의 결핍을 공적인 연설을 통해 비난함으로써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긍정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난”의 수사가 앞서 언급한 공적인 연설의 관습을 따르고 있음을, 즉 무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보편적 가치인 “영웅적 탁월함”을 지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집회나 회의에서의 연설이 “사내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계기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영광이 “영웅적 탁월함”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적인 연설에서 “비난”의 수사는 필연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탱하는 또 다른 요소인 무용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어지는 장에서는 네스토르의 연설을 통해 “비난”이라는 수사적 기교와 무용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3.2. 무용: “비난”의 필수적인 조건

“비난”이라는 말하기 방식에서 무용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각되는 모습은 7권에서 네스토르가 헥토르의 결투 제안을 회피하는 아카이아 장수들을 비난하면서 행하는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63</sup> 긴 분량이기 는 하지만 앞서 파악한 “비난”의 수사가 지닌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설이기에 전문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아아, 아카이아 땅에 큰 슬픔이 닥쳤소이다.

뫼르미돈인들의 탁월한 조연자이자 연설가인

---

<sup>63</sup> 비록 이 연설이 집회나 회의와 같은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 아카이아 군이 모여있는 가운데 행해진다는 점에서 공적인 연설에 포함될 수 있다.

노기사 펠레우스가 실로 크게 통탄할 것이오.

일찍이 그는 자기 궁전에서 아르고스의 모든 혈통과 자손에 대해  
대해 질문하면서 내게 묻기를 즐기고는 했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헥토르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는 자신의 혼이 사지를 떠나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불멸의 신들에게 자기 두 손을 들어 간절히 기원했을 것이오.

제우스 아버지시여, 아테나와 아폴론이시여,  
예전 물살이 빠른 켈라돈 강가에서 켈로스 인들과 아르카디아인들이  
한데 모여 창을 휘두르며 페이아 성벽 밑 이아르다노스의 물살 주위에서  
서로 싸우던 때처럼 내가 한창때였더라면!

그때 저들 가운데서는 신과 같은 인물 에레우탈리온이 가장 먼저 일어섰는데,  
그는 어깨에 아레이토오스 왕의 무구를 걸치고 있었소.

고귀한 아레이토오스를 사내들과 예쁜 허리띠를 맨 여인들은  
곤봉을 지닌 자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했으니,  
그가 활이나 긴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쇠로 된 곤봉으로 적의 진열을 무너뜨린 까닭이오.

뤼코오르고스가 힘이 아닌 피를 써서 좁은 길목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때는 쇠로 된 곤봉도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소. 왜냐하면 뤼코오르고스가 먼저 달려들어  
창으로 몸 한복판을 꿰뚫자 뒤로 자빠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오.

그리고 그가 무장을 벗겼는바 그것은 청동의 아레스가 준 선물이었으니,  
이후로는 그 자신이 그것을 입고 아레스의 초래한 혼란 속에서 활약했소.

하지만 뤼코오르고스는 자신의 궁전에서 노인이 되자,  
그 무구를 자신의 심복이었던 에레우탈리온에게 주었던 거요.

그는 그 무구를 걸치고선 모든 장수들에게 도전했으나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할 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소.  
 하지만 불굴의 용기가 대담하게 그와 싸우도록 나를  
 부추겼으니, 나이에 있어선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가장 어렸다고.  
 그래서 나는 그와 싸웠으니, 아테나가 내게 영광을 주셨던 것이오.  
 실로 나는 가장 거대하고 강한 사내를 죽였으니,  
 그는 거대한 덩치를 이쪽저쪽으로 뺨고 누워있었소.  
 그때처럼 내가 한창 때여서 힘이 강력하다면 좋으련만,  
 그랬다면 번쩍이는 투구의 핵토르도 당장 싸울 상대를 만났을 텐데.  
 하거늘 전 아카이아인들의 장수인 그대들 중에서는  
 아무도 자진하여 핵토르와 맞서기를 원하지 않는구려.

ὦ πόποι ἦ μέγα πένθος Ἀχαιῖδα γαῖαν ἰκάνει.  
 ἦ κε μέγ' οἰμῶξιε γέρων ἱππηλάτα Πηλεῖς  
 ἐσθλὸς Μυρμιδόνων βουληφόρος ἠδ' ἀγορητής,  
 ὅς ποτέ μ' εἰρόμενος μέγ' ἐγήθειεν ᾧ ἐνὶ οἴκῳ  
 πάντων Ἀργείων ἐρέων γενεήν τε τόκον τε.  
 τοὺς νῦν εἰ πτώσσοντας ὑφ' Ἑκτορι πάντας ἀκούσαι,  
 πολλὰ κεν ἀθανάτοισι φίλας ἀνὰ χεῖρας ἀείραι  
 θυμὸν ἀπὸ μελέων δῦναι δόμον Ἄϊδος εἴσω.  
 αἶ γὰρ Ζεῦ τε πάτερ καὶ Ἀθηναίη καὶ Ἀπολλων  
 ἠβῶμ' ὡς ὄτ' ἐπ' ὠκυρόῳ Κελάδοντι μάχοντο  
 ἀγρόμενοι Πύλιοί τε καὶ Ἀρκάδες ἐγχεσίμωροι  
 Φειᾶς παρ τείχεσσιν Ἰαρδάνου ἀμφὶ ῥέεθρα.  
 τοῖσι δ' Ἐρευθαλίῳν πρόμος ἴστατο ἰσῆος φῶς

τεύχε' ἔχων ὠμοισιν Ἀρηιθόοιο ἀνακτος  
δίου Ἀρηιθόου, τὸν ἐπικλήσιν κορυνήτην  
ἄνδρες κίκλησκον καλλίζωνοί τε γυναῖκες  
οὔνεκ' ἄρ' οὐ τόξοισι μαχέσκετο δουρί τε μακρῶ,  
ἀλλὰ σιδηρεῖη κορύνη ρήγνυσκε φάλαγγας.  
τὸν Λυκόοργος ἔπεφνε δόλω, οὐ τι κράτεϊ γε,  
στεινωπῶ ἐν δόῳ ὄθ' ἄρ' οὐ κορύνη οἱ ὄλεθρον  
χραῖσμε σιδηρεῖη: πρὶν γὰρ Λυκόοργος ὑποφθὰς  
δουρὶ μέσον περόνησεν, ὃ δ' ὕπτιος οὔδει ἐρείσθη:  
τεύχεα δ' ἐξενάριξε, τὰ οἱ πόρε χάλκεος Ἴαρης.  
καὶ τὰ μὲν αὐτὸς ἔπειτα φόρει μετὰ μῶλον Ἴαρος:  
αὐτὰρ ἐπεὶ Λυκόοργος ἐνὶ μεγάροισιν ἐγήρα,  
δῶκε δ' Ἐρευθαλίωφι φίλῳ θεράποντι φορῆναι:  
τοῦ ὃ γε τεύχε' ἔχων προκαλίζετο πάντας ἀρίστους.  
οἱ δὲ μάλ' ἐτρόμεον καὶ ἐδείδισαν, οὐδέ τις ἔτλη:  
ἀλλ' ἐμὲ θυμὸς ἀνῆκε πολυτλήμων πολεμίζειν  
θάρσει ᾧ: γενεῆ δὲ νεώτατος ἔσκειν ἀπάντων:  
καὶ μαχόμεν οἱ ἐγώ, δῶκεν δέ μοι εὐχος Ἰθήνη.  
τὸν δὴ μήκιστον καὶ κάρτιστον κτάνον ἄνδρα:  
πολλὸς γὰρ τις ἔκειτο παρήγορος ἔνθα καὶ ἔνθα.  
εἴθ' ὥς ἠβώοιμι, βίη δέ μοι ἔμπεδος εἴη:  
τὼ κε τάχ' ἀντήσειε μάχης κορυθαίολος Ἴεκτωρ.  
ὕμέων δ' οἱ περ ἕασιν ἀριστῆες Παναχαιῶν  
οὐδ' οἱ προφρονέως μέμαθ' Ἴεκτορος ἀντίον ἐλθεῖν. (7.124~160)

위에 인용된 네스토르의 연설은 앞서 살펴본 오뒷세우스나 디오메데스의 연설과 마찬가지로-그 표현의 수위는 완곡하지만-“비난”의 수사로 시작한다. 그는 아카이아의 장수들을 향해 곧바로 모욕의 화살을 쏘아대기보다는, 제 삼자인 펠레우스를 언급하며 그들의 용기 없음을 에둘러 비난하고 있다. 이후 132행부터 158행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떨쳤던 무용에 대한 회상이 이어지고, 마지막 두 행에 걸쳐 다시 한 번 아카이아 장수들이 헥토르와의 결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완곡하게 지적하는 “비난”의 수사를 활용함으로써 연설을 마무리한다.

이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난”의 수사 사이에 위치한 무용담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러한 무용담이 단지 무의미한 허풍이 아닌, 연설하는 인물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이제 늙었기에 더 이상 젊은 영웅들처럼 전장에서 자신의 무용을 몸소 증명할 수 없다. 때문에 네스토르는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비난”의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의 무용을 집요하리만치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공적인 연설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1권에서 네스토르가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를 중재하기 위해 행한 연설에서도 이미 나타난바 있다. 따라서 그의 무용담은 곧 연설가 네스토르 자신이 “비난”의 수사를 활용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기 과시이자 확인의 수단인 동시에,<sup>64</sup> 무용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연설이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영웅적 탁월함”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기

<sup>64</sup> <일리아스> 전체를 통틀어 연설 속에서 자신이 예전에 성취했던 무공을 이토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과시하는 등장인물은 오직 네스토르 뿐이다. 다른 인물들의 경우-심지어는 아킬레우스조차-그 역할은 온전히 시인의 몫이다. “불멸하는 명성(κλέος ἄφθιτον)”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시인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네스토르와 시인의 동질성, 그리고 그의 탁월한 말솜씨가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11권 656행부터 100행을 훌쩍 넘도록 이어지는 네스토르의 가장 긴 연설은-비록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그가 자신의 연설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는 아킬레우스가 다시 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무려 670행부터 761행까지 92행에 걸쳐 과거 자신이 떨쳤던 무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한 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래도 아카이아 인들은

부프라스이온으로부터 필로스를 향해 빠른 말들을 타고 되돌아 가면서  
 입을 모아 신들 중에선 제우스를, 인간들 가운데선 네스토르를 찬양하곤 했소.  
 나는, 오래 전 얘기지만, 못 사내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이였다고.

...αὐτὰρ Ἀχαιοὶ

ἄψ ἀπὸ Βουπρασίου Πύλονδ' ἔχον ὠκέας ἵππους,  
 πάντες δ' εὐχετόωντο θεῶν Διὶ Νέστορι τ' ἀνδρῶν.  
 ὡς ἔον, εἴ ποτ' ἔον γε, μετ' ἀνδράσιν. (11.759~762)

다시 7권의 연설로 돌아가보자. 네스토르는 이 연설에서 무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이 활용하는 비난의 수사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당화된 비난의 수사로 이루어진 연설은 아카이아 군 전체의 동의를 얻고, 이 동의는 곧 네스토르의 “영웅적 탁월함”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스토르의 연설은 “영웅적 탁월함이 인정받는 계기”라는 공적인 연설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다. 비록 네스토르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이 “비난”의 수사를 사용하는 경우, 즉 오딧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자신의 연설에서 무용을 직접적으로 과시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비난”의 수사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무용의 소유자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9권 도입부에서 아가멤논은 2권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즉 퇴각을 제안하는 연설을 한다.<sup>65</sup> 이에 대해 디오메데스는 강력하게 그를 공박하며 트로이아에 남아 계속 싸울 것을 주장하는데, 이후 살펴볼 테르시테스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아카이아의 아들들은 모두 환호로써 디오메데스의 연설을 승인한다. 비록 그가 네스토르 정도로 능란하게 연설의 기교를 활용하지는 못하지만,<sup>66</sup> 본격적으로 아카이아 군과 트로이아 군의 전투가 시작된 5권부터 아카이아 군의 회의가 재개되는 9권에 이르기까지 단연 “아카이아 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ἄριστος Ἀχαιῶν)”라는 평가<sup>67</sup>에 어울리는 활약을 보였다는 사실이 그가 아가멤논에게 가하는 “비난”이 무용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디오메데스는 1권에서 아킬레우스가 무대 뒤로 사라진 이후 양군 간 무게추가 트로이아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그의 혈기로 가득한 호언장담에마저<sup>68</sup> 모든 사람이 기꺼이 환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오딧세우스에게도 적용된다.

---

<sup>65</sup> 물론 이 경우는 2권에서와는 달리 아가멤논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연설이다(9.17~28).

<sup>66</sup> 바로 이어지는 연설에서 네스토르 역시 디오메데스의 부족한 말솜씨를 완곡하게 지적한다(9.56). Martin은 디오메데스가 14권에 이르러서 연설가로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14권 110행부터 시작하는 연설에서, 그는 마음속 계획을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선조들이 지녔던 뛰어난 무용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혈통이야말로 자신의 무용과 용기에 대한 증거임을 강변하는데, 이는 앞서 행했던 짧고 투박한 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네스토르나 쓸법한 수사적 기교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일리아스>의 다른 등장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디오메데스가 눈부신 무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연설가로서도 한층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Martin 1989, 23ff.).

<sup>67</sup> 5.103 & 414.

<sup>68</sup> 9.48f: “하나 우리 두 사람, 나와 스테넬로스는 일리오스의 종말을 볼 때까지 / 싸울 거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과 함께 여기 온 것이기 때문이오(ναῖ ὁ ἐγὼ Σθένελός τε μαχησόμεθ' εἰς ὃ κε τέκμων / Ἰλίου εὔρωμεν· σὺν γὰρ θεῶ εἰλήλουθμεν).”

테르시테스의 연설 이후 오딧세우스는 강력한 비난으로 그를 질책하고 폭력으로 그의 잘못된 연설에 대한 처벌을 실행한다.<sup>69</sup> 이어서 그는 앞서 인용되었듯이 땅에 떨어진 아카이아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투를 시작할 것을 독려하는 “비난”의 연설을 행하는데, 이 연설에 대해서도 아카이아 군은 디오메데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호성을 보낸다.<sup>70</sup> 비록 디오메데스처럼 연설에 앞서 두드러진 무용이 <일리아스> 내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서사시 전통이 오딧세우스에게 무용이라는 자질을 부여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71</sup> 따라서 디오메데스와 오딧세우스의 연설 역시 네스토르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비난”의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영웅적 탁월함”을 승인 받고자 하며, 연설에 대한 반응으로 울려 퍼지는 환호성은 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이어지는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공적인 연설들과의 비교를 통해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적인 연설의 관습-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로부터 출발한-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 3.3. 거부당한 연설: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

지금까지 우리는 <일리아스>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석상에서의 연설은 해당 인물이 지닌 “영웅적 탁월함”이 공적으로 승인 받는 계기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공적 연설에서 활용되는 “비난”의 수사는 무용이라는 자질과 분리될 수 없다는

<sup>69</sup> 2.246~266.

<sup>70</sup> 2.284~335.

<sup>71</sup>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오딧세우스의 연설 직전 시인이 그에게 부여하는 별칭이 “지략이 풍부한(πολύμητις)”이 아니라 “도시를 정복하는(πτολίπορθος)”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선 2권 225행부터 시작하는 테르시테스의 연설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또 불평하는 거요?  
그대의 막사들은 황금으로 가득하고, 골라 뽑은 많은  
여인들이 그대 막사 안에 있는데 말ियो. 우리 아카이아 인들이  
도시를 함락시킬 때마다 가장 먼저 그대에게 바친 여인들 말ियो.  
거기예다가 황금이 더 필요한 거요?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 인들 중  
누군가가 일리오스로부터, 나나 아카이아 인들 중 어떤 이가  
포박하여 끌고 온 자기 아들의 몸값으로 가져올 황금 말ियो.  
아니면 새로운 계집이 필요하신가? 욕정 속에서 몸을 섞을,  
그대 홀로 동떨어져 데리고 있을 계집 말ियो. 지도자의 몸으로  
아카이아의 아들들을 재앙으로 이끄는 것은 합당치 않소.  
물러터진, 욕 먹어 마땅한 자들아, 아카이아의 계집이지 사내도 아닌  
자들아!  
배를 타고 집으로 떠나, 여기 이 자가 트로이아에서  
자신의 명예의 선물을 만끽하도록 내버려두자. 우리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가 깨닫도록 말이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자인 아킬레우스를  
모욕했도다. 그의 명예의 상을 취하여, 손수 빼앗아 가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가슴에 분노가 일킨커녕 그는 무덤덤했으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번이 그대의 마지막 폭거가  
되었으리라.

Ἄτρεΐδῃ τέο δ' αὖτ' ἐπιμέμφει ἡδὲ χατίρεις;

πλεΐαί τοι χαλκοῦ κλισίαι, πολλαὶ δὲ γυναῖκες  
 εἰσὶν ἐνὶ κλισίῃς ἐξαιρετοί, ἅς τοι Ἀχαιοὶ  
 πρωτίστῳ δίδομεν εὖτ' ἂν πτολίεθρον ἔλωμεν.  
 ἧ ἔτι καὶ χρυσοῦ ἐπιδευέαι, ὃν κέ τις οἴσει  
 Τρώων ἵπποδάμων ἐξ Ἴλιου υἱὸς ἄποινα,  
 ὃν κεν ἐγὼ δήσας ἀγάγω ἢ ἄλλος Ἀχαιῶν,  
 ἢ ἔτι γυναῖκα νέην, ἵνα μίσγεται ἐν φιλότῃτι,  
 ἢν τ' αὐτὸς ἀπονόσφι κατίσχει; οὐ μὲν ἔοικεν  
 ἀρχὸν ἐόντα κακῶν ἐπιβασκέμεν υἷας Ἀχαιῶν.  
 ὦ πέπονες κάκ' ἐλέγχε' Ἀχαιῖδες οὐκέτ' Ἀχαιοὶ  
 οἴκαδ' ἐπερ σὺν νηυσὶ νεώμεθα, τόνδε δ' ἐῷμεν  
 αὐτοῦ ἐνὶ Τροίῃ γέρα πεσσέμεν, ὄφρα ἴδηται  
 ἧ ῥά τί οἱ χῆμεῖς προσαμύνομεν ἧε καὶ οὐκί·  
 ὃς καὶ νῦν Ἀχιλῆα ἔο μέγ' ἀμείνονα φῶτα  
 ἠτίμησεν· ἐλὼν γὰρ ἔχει γέρας αὐτὸς ἀπούρας.  
 ἀλλὰ μάλ' οὐκ Ἀχιλῆϊ χόλος φρεσίν, ἀλλὰ μεθήμων·  
 ἧ γὰρ ἂν Ἀτρεΐδῃ νῦν ὕστατα λαβήσαιο· (2.225~242)

위에 인용된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표면적으로 전형적인 “비난”의 수사를 활용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아가멤논에 대해서는 그의 탐욕을, 그리고 아카이아 군을 향해서는 그들의 비겁함을 지적하면서 테르시테스는 공식석상인 집회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공적인 승인을 구하고 있다. 테르시테스라는 인물과 별개로 연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표현의 유창함과 논리의 정합성에 있어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다.

먼저 테르시테스는 아가멤논의 황금에 대한 탐욕을 비판한다. 그리고 자신이나 혹은 다른 아카이아 인이 몸값을 받을 포로를 잡아다 주길 기다린다고 지적함으로써 아가멤논이 스스로 트로이아의 젊은이를 사로잡을만한 무용을 결여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의 내용과 논리는 1권에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가하는 비난과 동일하다.<sup>72</sup> 그리고 이어서 테르시테스는 아카이아 군 전체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 이때 사용하는 전략-만약 그대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물러터지고 욕먹어 마땅한, 사내도 아닌 계집에 불과”하다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비난”의 정석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난의 연술은 적절한 “연행시행(enjambment)”의 활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종속절들의 연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sup>73</sup> 더 나아가 Seibel은 테르시테스가 퇴각을 제안하는 아가멤논의 거짓 연설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는 유일한 병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연설이 날카로운 통찰력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sup>74</sup> 아가멤논의 퇴각 제안이 실제로는 병사들이 전투에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임을 테르시테스가 자신의 연설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테르시테스의 연설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가 앞서 살펴본 공격적인 연설의

<sup>72</sup> 1.225~230.

<sup>73</sup> “Thersites’ speech is a polished piece of invective. An apparently harmless initial question allows him to point out, in a smooth and carefully subordinated three verse sentence(226-8), that Agamemnon gets more than his share of booty in the form of bronze and women. Or is it more gold he needs, ransom-money for Trojans captured not by the king himself but by Thersites or his like – or a young woman to make love to? This explicit and insulting enquiry(229-33), again with elaborate syntax and careful enjambment and subordination, leads to a sharp change of tone and style, for now Agamemnon is briskly told that rebuking the army does not become the man who started it all. Then Thersites turns with bitter sarcasm on the assembly at large. After initial insults(235) the expansive style returns: they should indeed retreat with their ships, leaving the king to digest his rights and learn whether the army is important or not.” (Kirk 1985, 140).

<sup>74</sup> Seibel 1995, 389. 물론 이러한 해석은 테르시테스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일반 병사의 신분, 즉 “군중(δημος)”에 속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관습”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앞서 우리는 공식석상의 연설은 언제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 즉 “영웅적 탁월함”을 추구하며, 따라서 그때 활용되는 “비난”의 수사적 기교는 반드시 “영웅적 탁월함”의 나머지 한 요소인 무용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테르시테스가 자신의 연설을 뒷받침해줄 무용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테르시테스는 2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가 퇴장한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자신의 무용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무용이라는 자질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sup>75</sup>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본 테르시테스의 소개 장면에서 나타난 외모에 대한 묘사는 그와 같은 평가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확고한 근거이다.<sup>76</sup> 내적·외적 가치가 상호 일치한다는 호메로스의 가치관<sup>77</sup>을 차치하고라도, “절름발이”인 동시에 “곱사등이”인 사람이 무용을 떨칠 수 없으리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용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비난”으로 점철된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아카이아인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인이 그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

<sup>75</sup> <아이티오피스>가 <일리아스>보다 시간상 앞서며 후자가 전자를 모방했다는 Kullmann의 기계적인주장을 받아들여도(Kullmann 1984, 309ff.), 테르시테스에게 무용이라는 영웅적 자질을 부여하기는 불가능하다. <아이티오피스>에 간략하게 언급된 테르시테스 역시 아킬레우스를 비난하다가 살해당하는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같은 식으로 테르시테스가 칼뤼돈의 멧돼지 퇴치에 참가했다는 scholia의 의심스러운 정보를 <일리아스>의 전통 속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가 살펴본 이상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달려드는 멧돼지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가 멜레아그로스에 의해 절벽 아래로 내던져지기 때문이다(Combella 1976, 46 & Rankin 1972, 40).

<sup>76</sup> 이로써 시인이 연설과 무용을 동일한 명예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분명해진다. 테르시테스에 대한 “인물 소개”에서 그는 무용의 부재를 의미하는 추한 외모를 연설 능력의 결핍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sup>77</sup> “Äußerer und innerer Wert gehen bei Homer nicht derart(i.e. wie bei Archilochos) auseinander.” (Snell 1993, 61).

위에서 언급한 무용과 “비난”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가장 눈에 거슬리는 대목은 테르시테스가 자신의 무용을 과시하는 부분인 228행과 231행, 그리고 238행이다. 그는 자신이 “도시를 함락시켰노라”고, 트로이아 인들 중 누군가를 “포박하여 끌고 올” 것이라고, 더 나아가 자신이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용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이미 인물 소개를 통해 테르시테스가 전장에서 무용을 떨치기에 적합한 그 어떤 육체적 능력도 지니지 못했음이 기정사실화된바 있다. 그러므로 그의 연설은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무용이 전무한 자의 “비난”은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sup>78</sup> 따라서 앞서 테르시테스에 대한 소개 장면에서 살펴보았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ἀμετροεπής)”이란 독특한 형용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뒤이은 연설에서 오뒷세우스가 테르시테스를 비난하며 사용하는 호칭인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자(ἀκριτόμυθε)”<sup>79</sup> 또한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형용사라 하겠다.<sup>80</sup> 즉, 시인과 오뒷세우스는 각자 같은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형용사를 통해 테르시테스의 연설이 지닌 허점을 지적하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테르시테스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례적으로 그의 열등한 외모를 묘사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언뜻 연설과는 무관한 듯이 보이는 테르시테스는 추한 외모는 그의 연설이 공인된 관습을 거스르는 위반 행위이라는 시인의 판단을 지탱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sup>78</sup> “Thersites’ style deserves no respect because he does not have the heroic martial performance record needed to back up his words: again, style for the hero is a total notion, a proportion of words and deeds.” (Martin 1989, 111).

<sup>79</sup> 2.246.

<sup>80</sup> 천병희는 이 두 형용사를 모두 “수다쟁이”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시인의 테르시테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를 향한 아카이아인들의 가혹하기까지 한 분노를 설명할 수 없다. “수다쟁이”는 저지른 위반 행위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단어이기 때문이다.

관습이 <일리아스>의 보편적인 가치인 “영웅적 탁월함”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테르시테스가 범하는 위반 행위는 비단 관습의 위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테르시테스는 공적인 연설의 관습을 위반함으로써 보편적 가치, 그리고 그에 의해 지탱되는 공동체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테르시테스의 연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비난”의 수사가 공적인 연설의 관습을 위반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그가 앞서 살펴본 <일리아스>의 보편적 가치인 “영웅적 탁월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235행에서 테르시테스는 “물러터진, 욱 먹어 마땅한 자들아, 아카이아의 계집이지 사내도 아닌 자들아”라는 비난 가득한 호격(呼格)으로 아카이아 군을 비난하는데, 이는 “비난”의 수사에 어울리는 표현들이다. 하지만 테르시테스가 이러한 표현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비난의 수사가 다른 등장인물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물러터진(πέπονες)”이란 표현은 포세이돈이 칼카스의 모습을 하고 아카이아의 지휘자들의 분전을 촉구할 때 다시 한 번 등장한다.<sup>81</sup> 마찬가지로 “욱먹어 마땅한 자들(χάκ' ἐλέγγε)”이라는 비난 역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전투 중에 아카이아 군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된다.<sup>82</sup>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카이아의 계집이지 사내도 아닌 자들아(Ἀχαιῖδες οὐκέτ' Ἀχαιοί)”라는 강력한 질책은 7권 96행에서 헥토르의 결투 제안에 응하기를 망설이는 아카이아의 지휘자들에게 메넬라오스가 던지는 비난으로, 이러한 호된 질책은 이후 무려 아홉 명의 장수가 헥토르와 맞서겠노라고 자원하게 되는 간접적인 동기로 작용한다.<sup>83</sup> 즉 이들의 “비난”은 모두 “영웅적 탁월함”의 한 축인 무용,

<sup>81</sup> 13.120.

<sup>82</sup> 5.787 & 8.228.

<sup>83</sup> 7.161~168.

그리고 명예의 원천인 전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테르시테스는 이 모두를 완전히 상반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36행부터 그가 아카이아 군 전체에 트로이아로부터 퇴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Thalmann은 이와 같은 말하기 방식이 테르시테스의 선택이 아닌 상황적인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나의 가치기준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그에 포섭되지 않은 인물이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배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말하기 방식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84</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용이 공적인 연설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때, Thalmann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일견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열등한 인물’이 공식석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연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시인은 이미 1권에서 제시하고 있다.

1권 말미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임에서 발생한 제우스와 헤라의 언쟁은 앞서 벌어진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를 연상시킨다. 강력한 두 신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올림포스 전체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이때 둘 사이의 아들인 헤파이스토스가 등장한다.<sup>85</sup> 그는 자신의 부모를, 특히 어머니인 헤라를 달래고자 노력하는데, 불멸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써 두 신들 사이의 불화를 중재하는데 성공한다. 다음과 같은 헤파이스토스의 회상은 그의 말하기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전에도 어머니를 지키려던 저를 아버지가

---

<sup>84</sup> “In a world so dominated by the outlook of one class, Thersites has only the official language in which to challenge a basic assumption of that class.” (Thalmann 1988, 20).

<sup>85</sup> 테르시테스의 소개 장면에서 등장하는 외모에 대한 묘사-“절름발이”-로부터 청중들이 헤파이스토스의 모습을 떠올렸으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발을 붙잡고선 신성한 문턱으로부터 내던지셨으니,  
 전 하루 종일 추락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어서야  
 램노스에 떨어졌지요. 간신히 목숨만 붙은 채로요.  
 그때 신티에스 인들이 떨어진 저를 곧바로 돌봐주었습니다.

ἤδη γάρ με καὶ ἄλλοτ' ἀλεξέμεναι μεμαῶτα  
 ῥῖψε ποδὸς τεταγὼν ἀπὸ βηλοῦ θεσπεσίῳ,  
 πᾶν δ' ἤμαρ φερόμην, ἅμα δ' ἠελίῳ καταδύντι  
 κάππεσον ἐν Λήμνῳ, ὀλίγος δ' ἔτι θυμὸς ἐνῆεν·  
 ἔνθά με Σίντιες ἄνδρες ἄφαρ κομίσαντο πεσόντα. (1.590~594)

(밑줄은 필자 강조)

위 인용문의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라는 헤파이스토스의 표현은 살벌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과장이다.<sup>86</sup> 그는 자신을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헤라의 웃음을 유도하고,<sup>87</sup> 신들의 모임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다. 이어지는 헤파이스토스의 행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는 헤베 혹은 가뉘메데스에게 어울리는 역할이다-모든 신들의 잔에 넥타르를 따르며 돌아다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머지 신들 역시 웃음보를 터뜨리고 만다.<sup>88</sup>

자신의 비참한 경험에 대한 자기비하적인 묘사, 그리고 시종에게나 어울릴

<sup>86</sup> “...mit bewußter Komik, da Götter unsterblich sind. Die Lösung der Spannung im Gelächter deutet sich bereits an.” (Latacz 2000, 181). 더군다나 헤파이스토스는 연설의 도입부(1.573~575)에서 이와 관련된 인간과 신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한바 있다: “이는 실로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일 겁니다 / 두 분이 필멸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다투시어 / 신들이 모인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신다면 말이지요(ἤ δὴ λοίγια ἔργα τάδ' ἔσσειται οὐδ' ἔτ' ἀνεκτά, / εἰ δὴ σφῶ ἔνεκα θνητῶν ἐριδαίνετον ὤδε, / ἐν δὲ θεοῖσι κολῶν ἐλαύνετον)”. (밑줄은 필자 강조)

<sup>87</sup> 1.595.

<sup>88</sup> 1.597~600.

법한 허드렛일을 기꺼이 떠맡는 모습은 무거운 올림포스의 공기를  
일변시키기에 충분하다. 한 마디로 그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두 강력한 신들  
사이에 벌어진 불화를 해소시킨 것이다. 이는 테르시테스와는 그 방식과 목적에  
있어서 전적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테르시테스는  
스스로를 어울리지 않게 드높임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기만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나오는 글

자신의 무용에 대한 거짓된 과시, 명예의 원천인 전투에 대한 기피, 그리고 이를 오용하여 올바른 연설방식과 목적을 의도적으로 전도시키는 행위는 모두 “비난”이라는 연설 장르의 규칙을, 더 나아가 영웅의 자기 확인이자 승인 요구의 자리인 공적인 연설의 관습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설의 관습이 <일리아스>의 보편적 가치인 “영웅적 탁월함”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앞서 확인했던 테르시테스의 연설에 대한 시인의 예외적인 강력한 비난은 단지 그가 “무용”이라는 영웅적 자질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테르시테스는 그저 무용이라는 공인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뿐인 무능력자가 아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이미 밝힌 적이듯이, 그는 앞서 살펴본 <일리아스>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위반자’이며, 이러한 위반 행위는 보편적 가치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테르시테스가 최고 지도자인 아가멤논이 아닌, 아킬레우스와 오딧세우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ἔχθιστος)”라는 시인의 소개는 의미심장하다.<sup>89</sup>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가장 탁월한 무용을 뽑내는 인물이라면 오딧세우스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연설가로 인정받는 인물로서,<sup>90</sup> 이 두 사람은 <일리아스> 내에서

---

<sup>89</sup> Nagy는 “찬양시(praise poetry)”를 서사시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를 수용하여 이 두 인물이 찬양시의 뒤를 잇는 서사시라는 장르를 대표한다면, 테르시테스는 그에 대립하는 장르인 “비난시(blame poetry)”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았다. (Nagy 1979, 259ff.).

<sup>90</sup> 오딧세우스의 탁월한 연설 솜씨는 그의 연설에 대해 안테노르가 설명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3.204~224). 그럼에도 어째서 의문의 여지 없이 가장 뛰어난 연설가인 네스토르가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법 하다. 이는 아마도 “ἔχθιστος”라는 표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 이후 이어지는 연설은 예외 없이 강렬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 방식이 네스토르라는 인물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영웅에게 요구되는 가치, 즉 “영웅적 탁월함”을 대변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테르시테스는 무용과 연설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 공적인 연설의 수사적 기교인 “비난”을 법도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일리아스>가 최우선시하는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인은 테르시테스의 연설을 “되는대로, 도리에 맞지 않게(μάψ, ἀτὰρ οὐ κατὰ κόσμον)”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아카이아인들이 그에게 마음속으로 “마땅히 분노(νεμέσσηθεν)”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약어 목록

AJP	American Journal of Philosophy
CJ	Classical Journal
CP	Classical Philology
CQ	Classical Quarterly
CW	Classical World
G&R	Greece & Rome
GRBSt.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HSCP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JHS	Journal of Hellenic Studies
SO	Symbolae Osloenses
TAPA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 2. 1차 문헌

### 2.1. 원전

Homer. 1920. *Homeri Opera* in five volu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esiod. 1990. *Hesiodi Theogonia, Opera et Dies, Scut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2. 번역서

천병희. 1997.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종로서적.

Schadewaldt, Wolfgang. 1975. *Homers Ilias*. Frankfurt am Main: Insel Verlag.

## 3. 2차 문헌

Adkins, A. W. H. 1972. "Truth, ΚΟΣΜΟΣ, and APETH in the Homeric Poems." *CQ* 22, 5-28.

Austin, Norman. 1966. "The Function of Digressions in the Iliad." *GRBS* 7, 295-312.

Bassett, Samuel E. 1938. *The Poetry of Hom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ye, C. R. 1968. *The Iliad, the Odyssey, and the Epic Tradition*. London: Macmillan.

Bowra, C. M. 1930. *Tradition and Design in the Iliad*. Oxford: Oxford Clarendon Press.

- Combellack, Frederick M. 1976. "Homer the Innovator." *CP* 71, 44-55.
- Edwards, Mark. 1988. *Homer: Poet of the Iliad*. 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ränkel, Hermann. 1962. *Dichtung und Philosophie des frühen Griechentums: Eine Geschichte der griechischen Epik, Lyrik und Prosa bis zur Mitte des fünften Jahrhunderts*. München: C.H.Beck.
- Frisk, Hjalmar. 1973. *Griechisch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Zwei Bände.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 Griffin, Jasper. 1986. "Homeric Words and Speakers." *JHS* 106, 36-57.
- Kirk, G.S. 1977. *The Songs of Hom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1985. *The Iliad: A Commentary*. Vol. I , Book 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llmann, Wolfgang. 1984. "Oral Poetry Theory and Neoanalysis in Homeric Research." *GRBS* 25, 307-323.
- . 1985. "Gods and Men in the Iliad and the Odyssey." *HSCP* 89, 1-23.
- Lang, M. L. 1983. "Reverberation and Mythology in the Iliad." In *Approaches to Homer*, eds. C. A. Rubino and C.W. Shelmerdin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Latacz, Joachim. 1999. *Homer: His Art and His World*. Translated by James P. Holoka.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 2000. *Homers Ilias: Prolegomena*. München/Leibzig: K. G. Saur.
- . 2000. *Homers Ilias: Gesamtkommentar*. Bd. I , Erster Gesang. München/Leibzig: K. G. Saur.
- . 2010. *Homers Ilias: Gesamtkommentar*. Bd. II , Zweiter Gesang.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Lohmann, Dieter. 1970. *Die Komposition der Reden in der Ilias*. Berlin: Walter de Gruyter.
- Marks, Jim. 2005. "The Ongoing Neikos: Thersites, Odysseus, and Achilleus." *AJP* 126, 1-31.
- Martin, Richard. 1989. *Language of Heroes: Speech and Performance in the Iliad*.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Meltzer, Gary S. 1990. "The Role of Cosmic Perspectives in Shaping Homer's Tragic Vision." *CW* 83, 265-280.
- Mueller, Martin. 1984. *The Iliad*. London: Allen and Unwin.
- Nagy, Gregory. 1979. *The Best of the Achaeans: Concepts of the Hero in Archaic Greek Poetry*. 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ostlethwaite, P. 1988. "Thersites in the 'Iliad'." *G&R* 35, 123-136.
- Rankin, H. D. 1972. "Thersites the Malcontent, A Discussion." *SO* 47, 36-60.
- Redfield, James M. 1994. *Nature and Culture in the Iliad: The Tragedy of Hector*. Durham/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Reinhardt, Karl. 1961. *Der Ilias und ihr Dichter*, hrsg. von Uvo Hölscher.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Richardson, Scott. 1990. *The Homeric Narrator*. Nashville/Tennesse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Seibel, Angelika. 1995. "Widerstreit und Ergänzung: Thersites und Odysseus als Rivalisierende Demagogen in der Ilias(B 190-264)." *Hermes Bd. 123*, 385-397.
- Silk, Michael. 1987. *The Ilia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ell, Bruno. 1993. *Die Entdeckung des Geistes. Studien zur Entstehung des europäischen Denkens bei den Griechen*.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Thalman, W. G. 1988. "Thersites: Comedy, Scapegoats, and Heroic Ideology in the Iliad." *TAPA* 118, 1-28.

Willcock, M. M. 1964. "Mythological Paradeigma in the Iliad." *CQ* 14, 141-154.

———.1978. *The Iliad of Homer. Vol. I , Book I - XI*

# Abstract

## Thersites in the Iliad

KIM, JOONSUH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lassic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Iliad, the progress of the narrative is often interrupted by the poet's "character introduction." The main purpose for this interruption is not so much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characters as to call the auditor's attention to the following description of the events. That is, Homer's character introduction preceding the introduced character's speech serves as an encouragement to the auditor to concentrate on the speech as well as to accept the poet's view of events and characters involved therein.

The introduction of Thersites in Book 2 of the Iliad is a good example of such character introduction. However, there are at least two aspects that make Thersites's case different from other character introductions. First of all, it contain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rsites's physical appearance.

Second, in the introduction, the poet criticizes, or expresses downright aversion to, the character of Thersites. A careful analysis of the words and the formulaic expressions in which the poet introduces Thersites leads us to the notable fact that these expressions are not uttered directly by the poet-narrator, but repetitively given to characters of the work in their speeches to reproach the behavior of those who contravene the values generally accepted and respected in the entire community.

That the poet makes an exception of Thersites is evident in Thersites's subsequent speech. As a rule in Homer, a public speech delivered in the assembly of the Achaeans (*ἀγορή*) is a momentous occasion for the speaker in his quest for an official acknowledgement of "heroic excellence" by the community. Heroic excellence is achieved only when it is proved both in words and deeds, that is, in valor and speech. This is a principle asserted over and over throughout the epic by the poet as well as by the characters. The rhetoric of blame adopted by Thersites and other characters who give public speeches in the epic, clearly shows that valor and speech are equally indispensable to achieve heroic excellence.

In most cases, rhetoric of blame is employed in battle as a way to condemn the opponent's cowardice or incompetency. It is also used in public speech for the same features. It can be said that rhetoric of blame, whether in battle or not, always targets a reluctance to enter 'war.' The speaker not only denounces the opponent for the lack of martial ability, but also vaunts his own valor, exactly that which he himself possesses while his opponent does not. To use rhetoric of blame in public speech, thus, is to attempt to

gain the acknowledgement of the community of the speaker's heroic excellence.

To win a universal approval in public speech, the speaker needs to conform to the conventions granted in the community. Thersites' speech subverts the normative conventions of rhetoric of blame and in so doing breaks away from the purpose of the rhetoric. As the poet's unfavorable portrayal of his physical appearance indicates, Thersites completely lacks martial competence. He is shown to possess no valor essential to justify his speech. Moreover, the words and the formulae used by Thersites to instigate the Archaean warriors to withdraw from the battlefield are, in other parts of the Iliad, only employed to encourage them to fight a battle.

The subversion and inversion of the conventions of rhetoric of blame imply much more than just Thersites' incompetence in battle or in speech. This character defies the universal value of the world of the epic, that is, heroic excellence, by abusing the rhetoric of blame which premises up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valor and speech. This is the reason for the poet's direct criticism of, and aversion to, Thersites, the kind of which are not found in the whole of the Iliad.

**Keywords:** Iliad, Character Introduction, Thersites, Public Speech, Heroic Excellence, Rhetoric of Blame

**Student Number:** 2010-20059